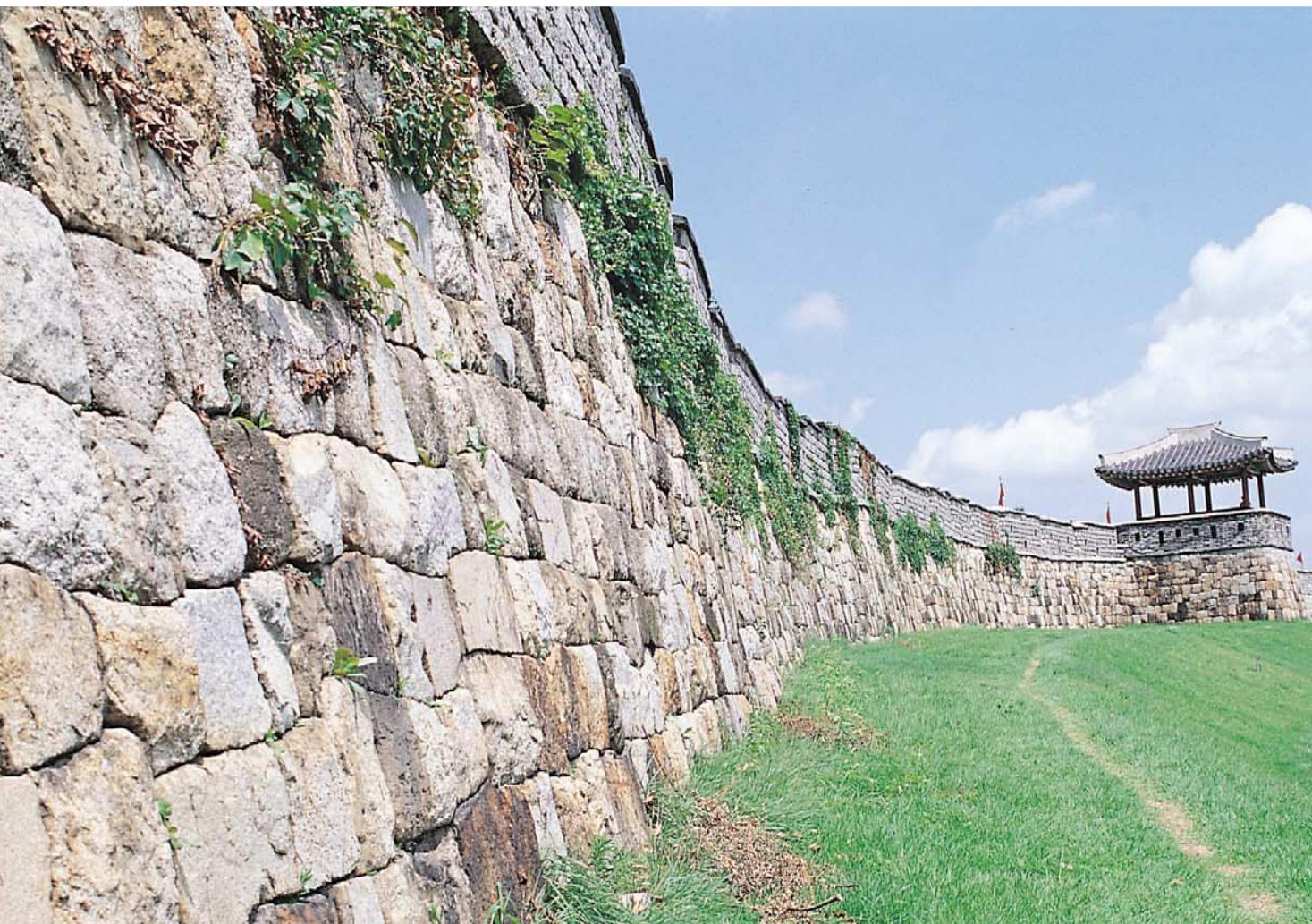


6. 답사(踏査)코스와 화성시설(華城施設)



6. 탐방코스와
화성시설

화성축성하기전에 선조들은....

- ※ 우리 민족은 제례의식을 통해 우리 선조의 정신을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지켜오며 발전시킨 전통문화를 이어왔다.
제사문화가 화려하게 꽂되었던 시기는 조선시대로, 조선 말기까지 유교문화속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왔다.
화성축성시에도 주요시설마다 신성한 마음으로 제를 먼저 올리고 축조를 시작하였으며, 축성 전에 돌을 떠서 사용하고자 했던 숙지산과, 축성 대상지인 팔달산신에게도 다음과 같은 고유문(告由文)을 먼저 드리고 있다.

● 숙지산에서 돌 뜨는 데 사용한 고유문

숙지산의 신령에게 고합니다.

엎드리어 생각하옵건대

하늘에서 나오는 산물은 그 뜻이 나라를 위함인데 이 산의 골이 아니고서는 성을 쌓을 수 없게 되었으니,

원하옵건대 신령께서는 아끼지 마시옵소서,

삼가 희생과 폐백으로 단술을 갖추고 칠밥을 담아서 몇 가지 음식을 진열하였사오니 밝히 흠향하시옵서.

● 성역(城役)을 시작하는 데 사용한 고유문

나라 임금은 신하 행 부사직 조심태를 보내어 삼가 팔달산의 신령께 고합니다.

엎드리어 생각하옵건대

물건이란 기수가 있어서 때가 되면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이 팔달산은 천년이 지나 비로소 빛날 운수가 돌아와 굳고 장엄한 영부를 그 아래에 짓게 되고,

찬란한 저 행궁은 서기가 어리었습니다.

크기도 하도다 이 산천이여 어찌 이렇게도 멋지게 감싸고 있는지요.

이제 호신을 명하여 축성을 시작할새,

산정에서부터 시작하여 10리를 뻗 둘러서 성을 쌓게 되옵니다.

공경하여 높으신 신령님께 고하옵나니 음식의 꽂다움을 신령께서 고무(鼓舞)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영험을

보이시어 사나운 객귀들을 막아 주시고 번병을 장엄하게 하여 주옵소서.



H W A S E O N G F O R T R E S S

6. 탐방(探訪)코스와 화성시설(華城施設)

화성탐방코스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원천을 중심으로 서쪽 화성의 형태를 거북(龜)형상코스, 동쪽 화성형태를 용(龍)형상코스로 정하여 접근하여 보았다.

거북(龜)형상코스 : 수원천을 중심으로 서쪽화성의 형태이다.

〈용도와 화양루를 거북의 목과 머리, 팔달산 능선을 거북의 등, 장안문과 팔달문을 연결하는 간선을 거북이 다리와 배, 장안문과 화홍문구간은 거북의 꼬리, 그리고 화성행궁을 거북의 심장부와 중요기관으로 연상하여 본 형상〉

■ ① 서장대코스+ ②서북공심돈코스를 연결하는 탐방구간

〈 팔달문 → 서남암문 → 화양루 → 서장대 → 화서문 → 장안문 → 화홍문〉

① 서장대(西將臺)코스 : 팔달산에서 화서문에 이르는 능선중심의 산성(山城)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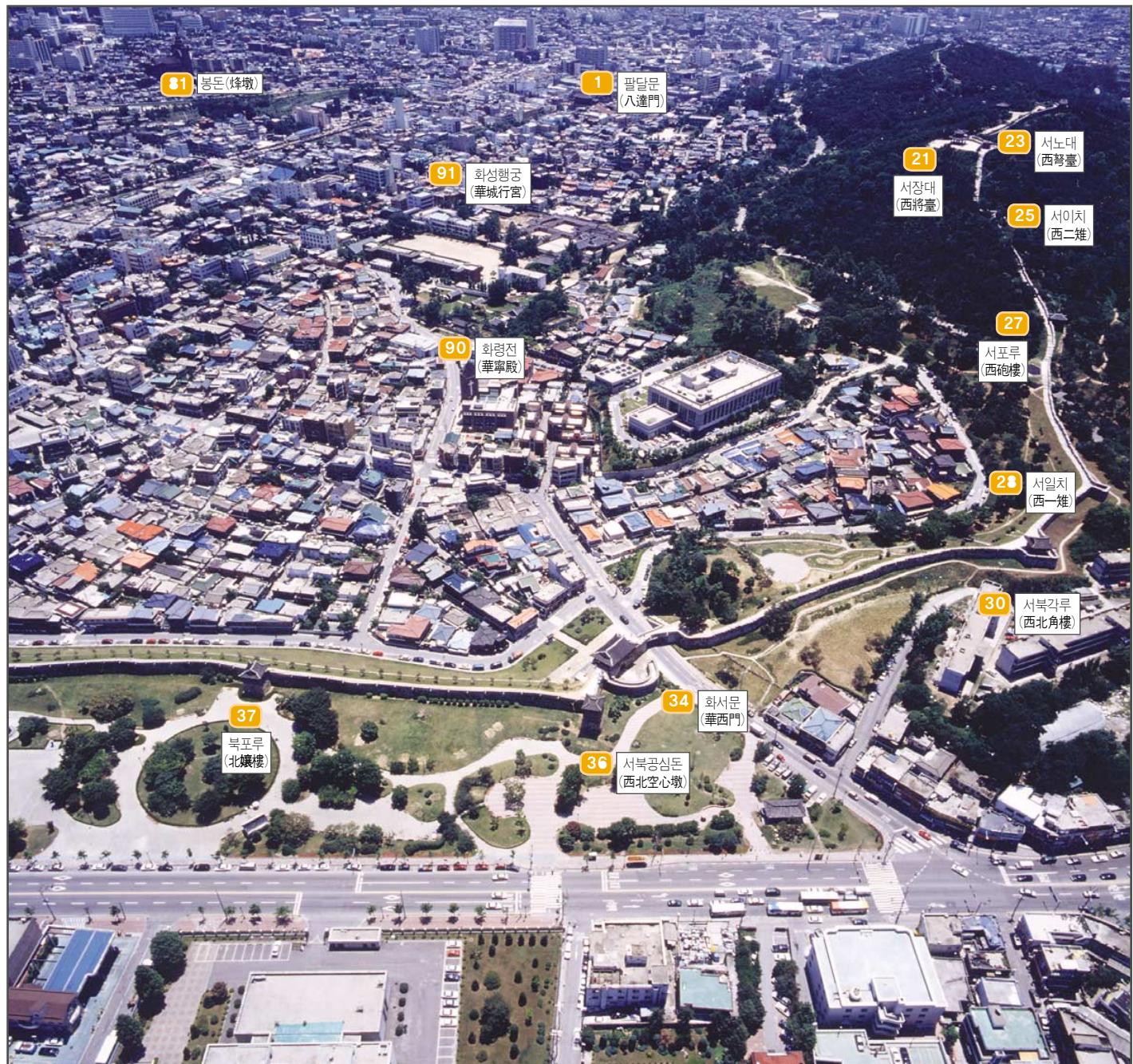


- 팔달문에서 출발하는 방법은 가파른 돌계단을 이용해야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서장대에 오르면 화성전체와 수원시가지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서장대관광안내소 앞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서장대를 손쉽게 접근하여 시간이 낙제지 않고, 몸이 불편한 탐방객이 선호 할 수 있다.
- 서장대에서 팔달산능선을 타고 내려와 화서문이나 팔달문 어느 쪽에서도 화성행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 팔달문에서 화서문까지는 약 2,010m로서 대략 1시간 10분정도가 소요된다.



정조대왕릉도감의궤 중 현무도

〈서장대코스 전경〉



1 팔달문 (八達門) : 보물 제 402호

장안문과 팔달문은 화성내부 남북방향을 연결(팔달로)하여주는 대표적인 관문이다.

팔달문은 남쪽대문으로서 건설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화성과 별도로 1967년 보물 제 402호로 지정되었다. 장안문의 반대방향으로 남향하여 건립된 팔달문은 모든 규모나 형태가 장안문과 동일하다.

또한 성문의 바깥쪽에는 벽돌로 옹기를 반으로 나눈 모양의 옹성(甕城)을 쌓아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을 두었다.

옹성 바깥쪽에는 일종의 총구 역할을 하는 수직으로 길게 뚫은 12개의 현안(懸眼)을 설치하여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강한 인상을 줌으로서 옹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시키는 시각적 효과를 주었고, 옹성문 위에 오성지(五星池: 5개의 구멍을 뚫어 적이 성문을 불태우려할 때 물을 흘려 방어하는 시설)를 설치하였다.

성문의 우측 석벽에는 석수 김상득등이 동원된 사실 등 성문을 축조한 관계자 이름과 인원 등이 새겨진 공사의 책임 소재(공사실명판)를 밝혀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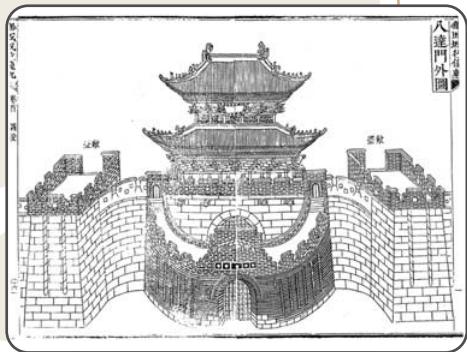
팔달문은 1794년 2월 28일 진시에 터를 닦기 시작해서 동년 9월 15일 중충누각이 완성되고, 1795년 4월 20일 옹성쌓는 일까지 다 마치었다.

공사비용은 68,127냥(팔달문: 52,423냥, 옹성 15,704냥)으로서 화성시설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당시 1냥으로 쌀 1석을 살 수 있었다 함. (1냥=10전)



1 팔달문전경



1-1 화성성역의궤에서의 팔달문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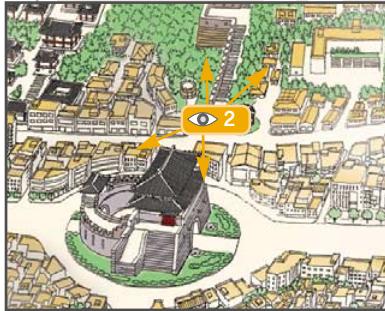
2 서장대코스 시작 / 팔달문근경

팔달문 서측을 볼수 있는 지점이다. 팔달문 우진각지붕의 위엄을 감상할 수 있다. 뒤를 돌아 올려다 보면 팔달산에 오르는 가파른 돌계단이 나온다. 오른쪽으로는 팔달문관광안내소가 있어서 화성탐방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간단한 안내책자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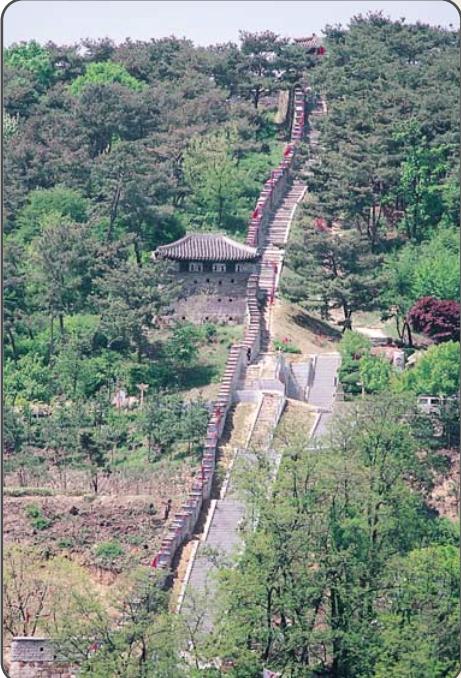
영어. 일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하다.

왼쪽편으로는 제 1회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팔달문화장실이 있다. 팔달산 중턱인 서장대 안내소까지 가야 화장실이 나타나므로 미리 이용해 두는 것이 좋다. 화장실 앞에는 매점도 있다. 성 안쪽을 탐방하려면 돌계단을 오르면 되고, 성 바깥쪽을 탐방하려면 팔달문 화장실 옆쪽의 애담한 길로 접어들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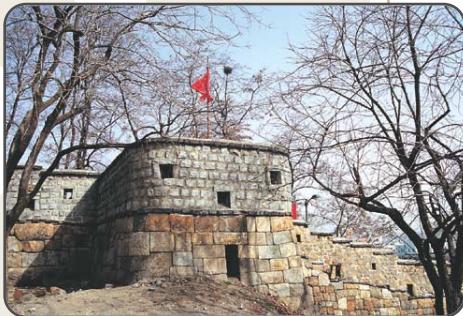
화성을 탐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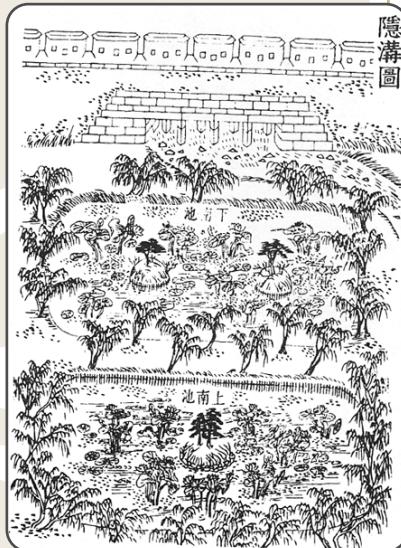
1-2 팔달문 전경



 2 팔달문 관광안내소 앞에서 팔달산으로 본 전경



3-1 남치전경



3-1 화성성역의궤의 은구도 (화성성역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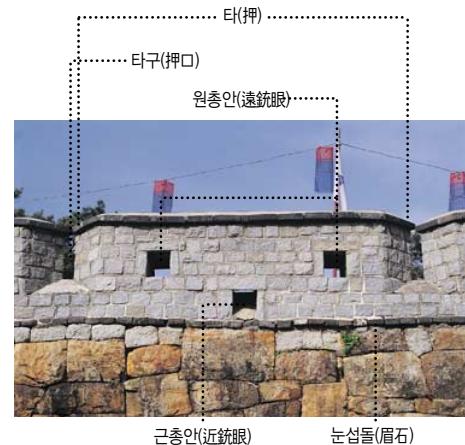
치(雉)는 성곽요소에 성벽을 돌출 시켜 전방과 좌우방향에서 접근하는 적병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다. 화성성역의궤에서는 8개의 치를 언급하고 있다. 화성(華城)의 지형은 팔달산을 서쪽으로 끈 경사지고 불규칙하였으므로 치(雉)를 일정한 간격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지 않고 지형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지어졌다. 동쪽에 3개(동일치, 동이치, 동삼치), 서쪽에 3개(서일치, 서이치, 서삼치)가 설치되었으며, 북쪽에는 북동적대와 이어진 북동치가 남쪽에 남치가 설치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서 언급되어지지 않은 용도 내에 있는 서남1치와 서남2치를 포함하면 순수한 치는 10개소가 된다.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 1542 ~ 1607)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성곽의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고 그 보완책을 강구하였는데, 그 중에서 치성의 축조와 치성을 응용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의 주장은 화성축성에 반영되어 치성을 곳곳에 설치하게 되었다.

남치는 남포루와 팔달문 사이에 있으며, 남치를 만드는데 사용된 비용은 1,239냥이 들었다. 남치와 팔달문 사이의 성벽 안쪽(현재 팔달관광안내소인근)으로 상남지(上南池: 1794. 4. 1완성)와 하남지(下南池: 1796. 7. 27완성)의 두 연못으로 구성된 남지(南池)가 있고, 물줄기를 빼내기 위한 남은구(南隱溝)라는 배수구가 있었다.

화성성역의궤 은구도(隱溝圖)는 바로 남지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당시 연못조경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4

남포루 (南砲樓)

포루(砲樓)는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치성과 유사하게 축조하면서, 내부를 공심돈과 같이 비워 그 안에 화포 등을 감추어 두었다가 위. 아래와 삼면에서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성곽시설물중에서 가장 중무장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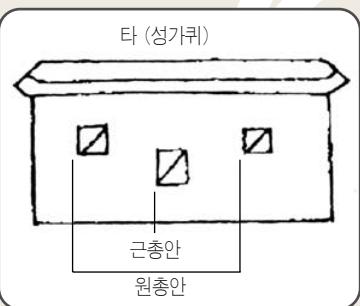
화성에는 벽돌을 사용하여 모두 5개의 포루(남포루, 서포루, 북서포루, 북동포루, 동포루)를 만들었는데, 서포루만 약간 작고 4개의 포루는 동일한 규격이다.

남포루는 팔달문에서 화양루(서남각루)에 이르는 방어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팔달산 남쪽 중턱의 홍난파노래비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남포루는 1796년 7월 9일에 완성되었으며, 만드는데 3,203냥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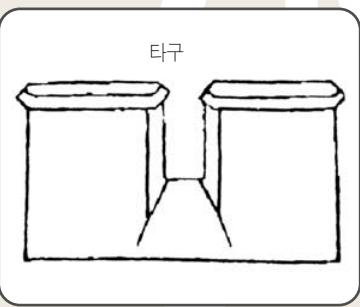


4

남포루 규형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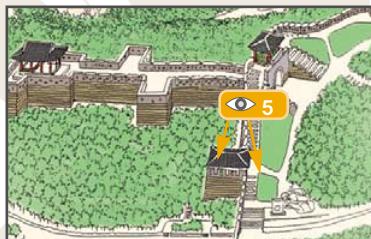


타 (성가퀴)



서장대코스

❸ 5 팔달문 주변전경



남포루와 서남포사 중간에서 본 전경이다.

팔달문과 그 일대 전경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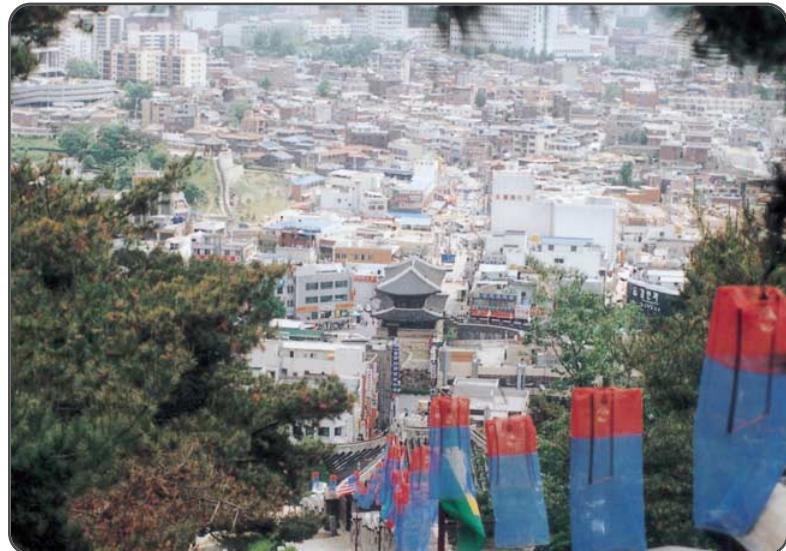
동남각루에서 팔달문, 남포루까지 조망되고, 근경으로는 팔달문에서부터 오르는 돌 계단과 지형높이 따라 단계되어진 타(押)의 모습이 아름답다.

❹ 서남암문 (西南暗門)

암문은 평시에는 양식, 가축, 수레 등을 들여오고, 전시에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 연락을 취하거나 배후공격 및 군수품을 조달하는 비밀문이다.

화성에는 5개소의 암문이 있었으나 남암문을 제외한 4개소(북암문, 동암문, 서암문, 서남암문)가 남아있다. 서남각루(화양루)로 이어지는 약 170m길이의 용도가 시작되는 곳으로서 암문중에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796년 8월 6일 서남암문 홍예가 완성되었으며, 1,777냥의 비용이 들었다.



❸ 5 팔달문과 시내전경

7 서남포사 (西南嬪舍)

암문에는 일반적으로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지만 서남암문에는 포사(嬪舍)를 세웠다. 이곳은 팔달산 서남쪽의 높은 곳이어서 서남방향으로 가장 조망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이다. 서남암문위에 지어진 일종의 경비초소라 할 수 있다.



7-1 성안쪽에서 서남암문/서남포사



6 7 서남암문위의 서남포사-암문(暗門)과 포사(嬪舍)기능이 결합되고, 벽돌과 석재가 혼합된 형태를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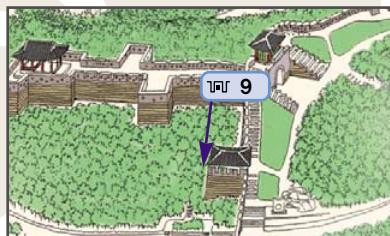
용도 (甬道)



■ 서남암문을 빠져나와 용도를 거쳐
화양루로 가는길



■ 9 화양루타구에서 본 남쪽성벽



용도는 양측에 담을 쌓는 길이란 뜻으로 팔달산 남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팔달산 남쪽 능선에 오르면 팔달문을 비롯하여 창룡문과 화홍문일대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적군이 이곳을 점령하면 화성내의 동정을 적에게 그대로 드러내놓게 되기 때문에 팔달산 남쪽 능선까지 성곽을 연장하여 용도를 만든 것이다. 서남암문에서 시작되어 서남각루(화양루)까지 연결되는 용도는 약 170m이다. 화양루로 빠져나온 파란잔디와 오솔길이 인상적이다.

용도를 만드는 데는 총 5,408냥의 비용이 들었으며, 1796년 9월 7일 용도공사를 마쳤다.

■ 9 화양루용도 < 남포(砲)루

서남암문을 지나 [화양루방향의 원쪽성벽 3번째 타구](#)에서 남포(砲)루 방향으로 바라본 것이다. 지형을 따라 내려간 성의 모습과 단차를 따라 연이어진 타(성가퀴: 근총안2개, 원총안1개가 한조로 이루어진 성위보호벽)의 포개진 모습이 어울린다. 주변 수백년된 소나무가 어울려져 풍취를 돋운다.



■ 9-1 화성남쪽성벽

10 서남1치 (西南一雉) : 용도서치

용도가 170m나 이어지기 때문에 양쪽에 치성을 설치하여 방어하였다. 서남 1치는 화양루(서남각루)를 향하여 용도 내의 서측에 있는 치이다. 방어구간은 화양루에서 서남포사까지가 된다.

11 서남2치 (西南二雉) : 용도동치

화양루를 향하여 용도 내의 동측에 있는 치이다.

화양루와 남포루사이의 성벽을 방어할 수 있으며, 경사진 구릉의 능선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용도의 좌우에 있는 서남2치와 서남1치는 용도치(甬道雉)라고도 한다.
1796년 9월 7일 완성되었다.



10-1 화양루와 서남1치 전경



10 서남1치 (용도서치)



11 서남2치 (용도동치)

이 각루는 일명 화양루라고도 한다.

'화' (華)자는 화성을 뜻하고 '양' (陽)자는 산의 남쪽을 뜻하는 글자로 화성의 남쪽에 세운 누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남암문 밖 용도 끝의 170m지점에 따로 우뚝서 있다.

이 위치는 지세가 높아 적에게 점령당하면 성안의 정황이 노출 될 위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벽에 바깥쪽 산 끝자락까지 용도 (甬道)라는 긴 통로를 설치하고 누각을 세운 것이다. 화산과 용릉을 비롯한 팔달산 남쪽의 광활한 지역조망이 가능하다.

서남각루는 1796년 4월 16일 공사를 시작하여 동년 7월 20일에 완성되었으며, 만드는데 885냥의 비용이 들었다.

● 수원춘팔경

» 화산서애 (花山瑞靄) : 아지랑이 피어 오르는 화산의 정경. 사도세자(뒤에 장조로 추존)께서 영면하고 계신 곳,

뒤에 정조대왕도 이곳에 묻혀 왕기가 서린 화산(花山)은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이면서 수백 개의 산이 꽃잎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천하의 길지라고 알려져 있다.

일찍이 고산 윤선도가 효종의 능침으로 지목하는 등 수백년간 풍수
가들의 지목을 받아왔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지랑이처럼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특히 아버지 사도세자가 잠들어 계신 곳이기에 춘팔경
의 첫 번째로 삼았을 것이다.



● 수원 추팔경

» 양루상설 (陽樓賞雪) : 팔달산 정상에서 남쪽 부분에 있는 화양루

(華陽樓 : 서남각루)에서 늦가을에 내리는 눈을 감상하는 정경. 문
루에 올라서 광교산과 성내, 남쪽과 서쪽 벌판에 내리는 눈발을 바
라보는

정취는 지금도 느낄 수 있다.

방화수류정 용연의 달구경 못지않게 시흥 (詩興)이 넘치는 정경이다.

13 화양루에서 보는 수원 남쪽 들판전경

팔달산 능선자락의 서남쪽 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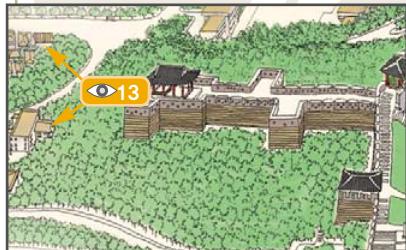
동쪽으로 광교산, 서쪽으로 칠보산, 남쪽으로 화산, 용주사, 독산성을 비롯하여 수원 서쪽과 남쪽으로 펼쳐진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문루에 올라서 화성의 장관을 굽어보고, 팔달산 일대에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는 풍경을 감상하는데는 화양루가 적격이다. 방화수류정의 달구경 못지않게 화양루의 눈구경은 화성의 또다른 멋으로 여겨졌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팔달문에서 서남포사, 팔달산능선을 거쳐 화서문, 장안문까지 와 여기서부터 다시 팔달문까지 연결하면 거북의 형국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서남암문을 통하여 죽 빠져나온 용도의 형태는 거북의 목부분으로 연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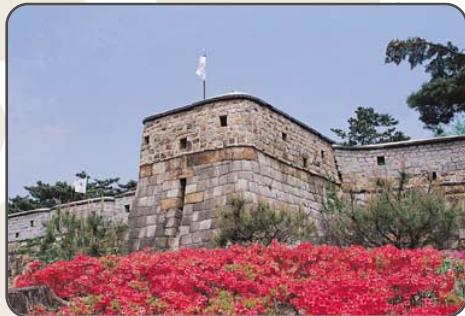
또, 지도상의 화성행궁은 거북의 심장이요, 또 미래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알을 품고 있는 거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안문과 화홍문까지는 거북의 꼬리이다. 수원천으로 드리우고 있다.

반면, 용연, 용두암과 연결된 방화수류정(동북각루)을 용의 머리로 보고 곡선의 성곽과 연결된 각전대, 동장대, 동북공심돈, 창룡문, 봉돈, 동남각루 등의 부속시설은 용의 몸통과 다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역시 봉돈, 동남각루를 통하여 꼬리를 수원천에 드리우고 있다. 수원천을 가운데로하여, 머리를 남쪽으로 둔 거북과, 머리를 북쪽으로 둔 용의 모습에서 상생(相生)의 조화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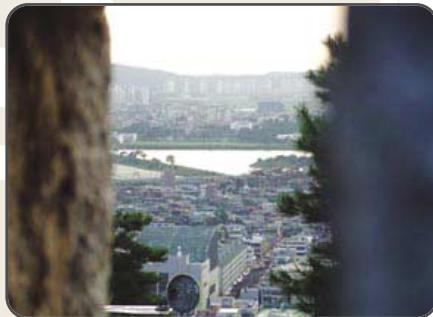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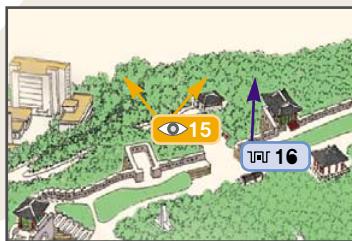


12 서남각루 / 화양루

14 서삼치 (西三雉)



14 서삼치 – 서남포사와 서장대관광안내소 사이에 있는 서삼치



16 서포루 타구에서 본 서호전경

서삼치는 서포루(西嬪樓)와 서남암문사이에 있으며 서장대관광안내소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서포루와 서남암문 사이의 성벽을 방어할 수 있다. 만드는데 1,168냥의 돈이 들었다.

15 서호, 여기산, 서수원전경

활달산능선 중간의 서장대관광안내소 앞의 주차장을 지나서 조그만 계단으로 내려오면 매점과 화장실이 있다. 그 사이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야외탁자와 의자가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서수원전경이 일품이다. 밖으로 길다란 칠보산능선과 여기산능선, 그리고 여기산 앞의 서호(축만제)전경이 들어온다. 수원8경의 하나인 서호낙조 (西湖落照 : 서호노을에 드리운 여기산 그림자)를 감상하기에 편안하다.

16 서포루 < 서호

서포루 남쪽방향 2번째 타구에서 서호를 바라본 것이다. 앞쪽과 서수원쪽으로 현대식 건물들이 가득 들어찼지만 아직도 서호와 칠보산 능선의 자연성을 볼 수 있다. 서호는 수원8경의 하나로 서호낙조(西湖落照 : 해질녘 낙조 드리운 서호)로 꼽아 해질 무렵 서호에 잠기는 붉은 노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다. 서호는 1799년(정조23)에 축조된 저수지로서 축만제가 정식 명칭이다.

여기산의 푸른숲과 호수주변의 소나무가 빼어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15 매점에서 본 서호, 여기산, 서수원 전경

17 서포루 (西嬾樓)

포루(嬾樓)는 치성 위에 지은 누각이다.

포루(嬾樓)는 화포를 장착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고, 치성의 군사들을 가려 적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서포루는 서장대 아래에 있는 서암문과 서삼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암문이 적에게 발각되어 공격받는 것에 대비하여 설치하였다.

1796년 8월 18일에 준공되었으며, 완성하는데 2,667냥의 비용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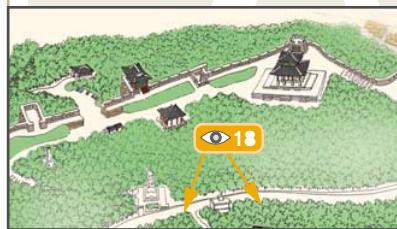
17 성밖에서 본 서포루전경



17-1 서장대로 올라가며 보는 서포루



17-2 봄꽃과 어울어진 서포루 전경



18 효원의종에서 본 봉돈, 동남각루, 월드컵구장 전경

19 서암문 (西暗門)



19 북측에서 본 서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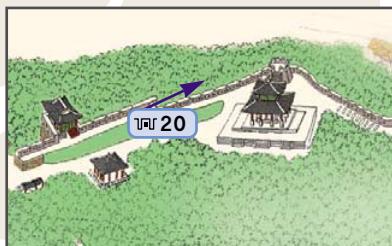
서암문은 군사지휘소인 서장대에서 약 52m정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암문과는 달리 출구가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고 옆으로 틀어져 있어, 밖에서 구별하기가 어렵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자연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암문을 설치했기 때문에 암문에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는 문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1796년 6월 18일 서암문 홍예가 완성되었고, 1,253냥의 공사비가 들었다.

19 20 서암문 < 서장대방향

서암문 홍예문위의 성안쪽에서 첫번째, 3번째 총안으로 본 서장대방향의 성벽이다. 울창한 주변 숲과 함께 성벽이 돋보인다. 아래부분의 성벽과 윗부분인 타(성가퀴)사이의 눈썹돌이 투박한 것 같지만 조형미까지 갖추어져 성벽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성벽의 다양한 얼굴과 고풍스러움 발견할 수 있다.



19 20 총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벽, 눈썹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21 서장대 (西將臺) : 화성장대(華城將臺)

장대(將臺)란 성을 지키는 장수의 군사지휘소이다. 장대는 주변의 사방을 내려다보면서 군사를 지휘. 훈련하던 곳으로, 화성에는 동장대와 서장대 2개소가 있다.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위치하는 군사지휘본부로 일명 화성장대로 불리운다. 2층구조의 서장대에 오르면 사방 백리 안쪽의 모든 동정을 앉은자리에서 통제할 수 있었고, 성안에 있는 군사를 한눈에 보고 지휘할 수 있었다고 한다.

1795년 윤2월 12일 정조임금은 화산농 참배를 마치고 서장대에 올라 성을 수비하고 공격하는 주간훈련(城操)과 야간훈련(夜操)을 시행하였다. 이 훈련은 화성의 방어체제를 점검하고, 일원적인 지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성성역의궤에 ‘연거도’가 남아있어 당시의 훈련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서장대는 전란으로 훼손된 것을 1971년에 화성성역의궤에 근거해서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1794년 8월 11일 터닦기공사를 시작하여, 1794년 9월 29일 완성되었다. 장안문(9월5일), 팔달문(9월 15일), 장락당(9월 22일), 낙남현(9월 28일)과 함께 화성 시설물 중 초기에 만들어진 시설이다. 당시 서장대를 만드는데 사용된 축조비용은 7,910냥이 들었다.

● 수원추팔경

» 서성우렵(西城羽獵) : 성의 서쪽에서 매를 이용해 사냥을 즐기는 것. 1796년(정조 20)에 그려진 김홍도의 ‘서성우렵’은 화성 서장대 아래로 화서문 밖과 현재의 고등동, 화서동, 영화동, 광교산 및 들판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21 서장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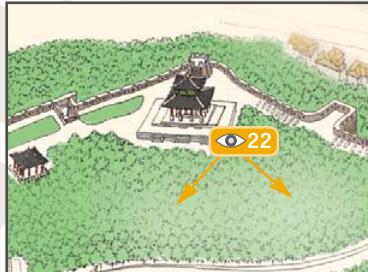


21-1 화성장대 현판과 절병통



21-2 서장대로 접어드는 길

☞ 22 월드컵 축구전용경기장



서장대 북동쪽 모서리인 이곳에서는 화성을 따라 넓은 범위를 볼수있는 위치이다. 장안문, 광교산, 수원천, 화홍문, 방화수류정, 동장대, 월드컵구장, 봉돈, 동남각루전경 등 화성의 대부분을 볼 수 있다.

또한 화성북쪽과 광교산, 광교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수원천과 창룡문 너머에 있는 2002년 월드컵구장 지붕이 새의 날개를 양옆으로 폈고 비상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 곡선은 바로 뒤 산능선과도 조화되고 있어 도시경관을 고려한 계획의 가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 22 서장대 북동쪽 모서리에서 본 수원 월드컵 축구전용 경기장의 아름다운 지붕선

23 서노대 (西弩臺)

노대(弩臺)란 누각이 없이 전돌(벽돌)로 높게 쌓아 적이 근접했을 때 쇠뇌(여러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쏘는 활의 일종)를 쓸 수 있도록 하여, 옆의 군사지휘본부인 서장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높은 대를 만든 시설을 이용하여 오방색 기(旗)로 신호하여 성 전체에 군사지휘본부의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노수(弩手: 큰 활을 쏘는 군사)가 대(臺)위에 활과 다섯색깔의 깃발을 갖고 잠복해 있다가 적이 동쪽에서 오면 청색깃발, 남쪽에 나타나면 적색깃발, 서쪽이면 백색깃발, 북쪽이면 흑색깃발을 들고, 적이 돌아가면 황색깃발을 들어 성안에 적의 동향을 알리고, 적이 근접해 오면 활을 쏘아 적을 공격하였다.

화성에는 서노대와 동북노대의 2개노대가 있는데, 이곳 서노대(西弩臺)에 오르면 화성(華城)의 가장 높은 곳으로서 성내는 물론 성 밖의 동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화성축조 당시 서장대와 뒤에 노대를 쌓고, 그 옆에 3칸의 군무소(군무를 보기위한 장소)를 지었으나 1971년 복원시에는 군무소(후당)를 복원하지 못하였다.

서노대를 만드는데는 1,815냥의 비용이 들었으며, 1795년 2월 28일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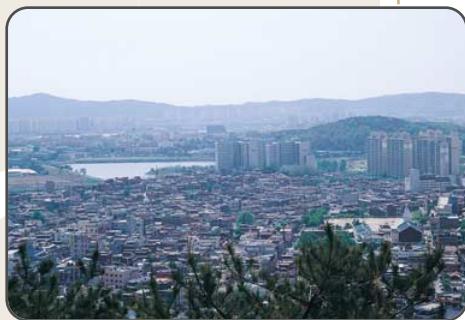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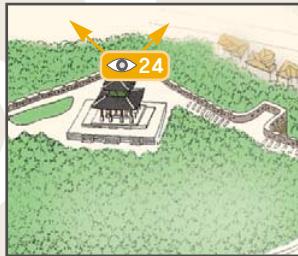


23 남측방향에서본 서노대



23-1 서노대를 오르고있는 학생들

◀ 24 서노대 위에서의 전경



◀ 24 서노대 위에서 서호로 본 전경

서노대 위에서 본 조망경관이다.

서장대를 보호하기 위한 쇠뇌(여러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쏘는 활의 일종)를 쏘고, 오방색기로 신호하여 군사지휘본부의 명령을 하달하였던 곳이다.

북수원과 서수원의 전경이 잘 보이고, 칠보산, 서호, 여기산, 숙지산, 만석지, 광교산 등을 전망할 수 있는 팔달산에서 가장 높은 자리이다.

● 오방색

오방색은 음양오행의 오행을 색으로 나타낸 것으로 목(木)은 청(青), 금(金)은 백(白), 화(火)는 적(赤), 수(水)는 흑(黑), 토(土)는 황(黃)에 대응된다.

음양오행 사상에 따르면 흰색, 황색, 적색은 양(陽)이고, 청색, 흑색은 음(陰)으로서, 오방색의 의미를 바탕으로 화성성곽을 따라 오방기가 나부끼고 있다.

즉, 동쪽 청룡문 주변으로 청색기

서쪽 화서문 주변으로 백색기

남쪽 팔달문 주변으로 적색기

북쪽 장안문 주변으로 흑색기

중앙 즉 화성행궁엔 황색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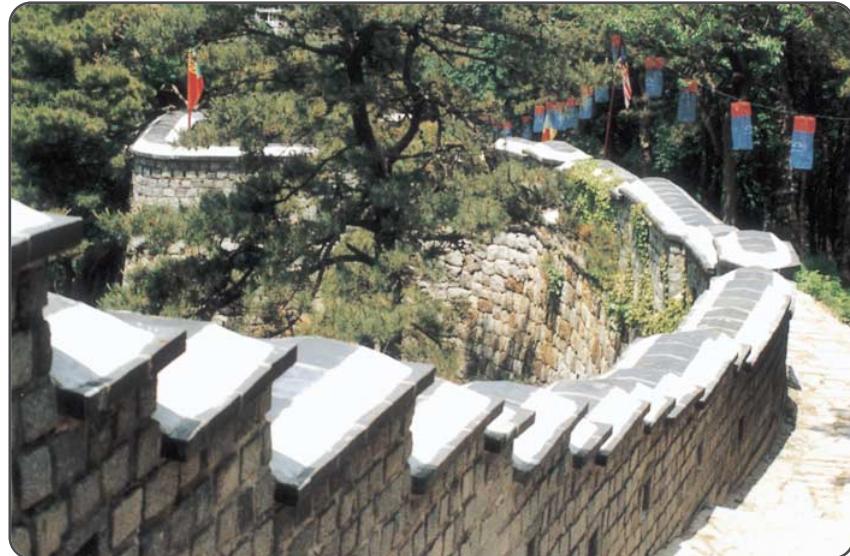


25 서이치 (西二雉)

치는 성곽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한 구조물로서 성벽 가까이 접근하는 적군을 공격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서이치는 서장대와 서포루(西砲樓) 사이를 방어하고 있다. 축조하는데 1,180냥의 비용이 들었다.

26 서이치 < 서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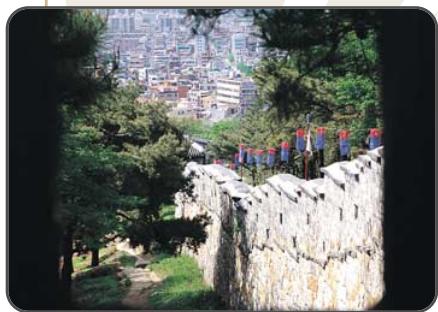
서이치 북쪽 성안쪽에서부터 2번째의 총안에서 서포(砲)루 방향으로 본 경관이다. 지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려간 타(성가퀴)가 인상적이고 올망졸망한 돌을 사용한 성벽이 특징이다. 성안에서의 계단을 이용하여 탐방하는 것도 좋지만, 성밖의 오솔길로 내려오면서 성벽에 사용한 돌이 구간마다 서로 달라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25-1 팔달산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성곽



25 서이치 – 성안쪽에서 본 서이치



26 서이치 총안에서 본 서포루전경

27 서포루 (西砲樓)



27 성안쪽에서의 서포루 전경

포루(砲樓)는 적이 성벽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포(火砲)를 쏠 수 있도록 만든 누대로서, 성벽에서 튀어나오게 만든 치성의 발전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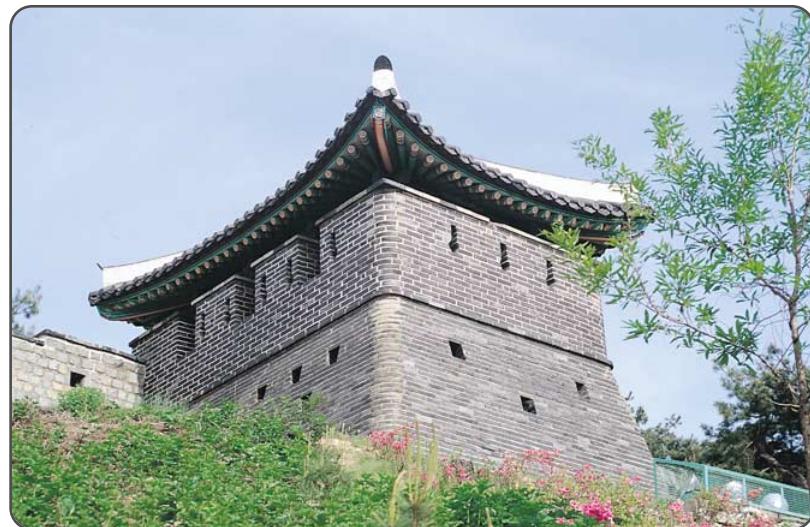
공심돈과 같이 가운데를 비우고 치성 위에 누각을 지어서 화포를 감추어두고, 위아래로 한꺼번에 발사하여 성벽에 접근하는 적에게 피해를 주도록 만들었다.

서장대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m떨어진 가파른 돌계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일치와 서이치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최하층에는 성 밑을 겨눌 수 있게 포혈을 내고 총안을 각 면에 두었으며, 2층에는 상하 2단의 총안을, 상층의 여장에는 총이나 화살을 쏠 수 있는 구멍을 내었다.

화성의 최고 군사지휘소인 서장대 근거리에 위치한 까닭으로 5개의 포루중에서 가장 중무장한 포루로서 서장대와 화서문 사이를 방어하고 있다.

서포루는 1796년 5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총 2,647냥의 비용이 들었다.



27-1 성 바깥쪽에서의 서포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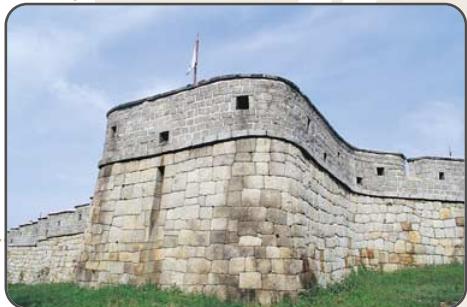
서일치는 서북각루와 서포(砲)루 사이에 있다.

성벽과의 접속부와 모서리는 둥글게 석축으로 쌓았다. 돌출된 3면에는 원총안과 근총안을 각면에 내고, 성벽 전면에는 현안(치성의 벽면에 길게 내리 끊은 구멍)을 두었다. 만드는데 든 비용은 1,407냥이 들었다.

29 서일치 < 서북각루

서일치 북쪽 성안쪽으로부터 3번째의 총안에서 서북각루로 바라본 모습이다.

1번 총안에서의 경관도 좋다. 서북각루 양쪽 현대식 건물들이 정리되고, 서북각루 모습만이 중앙으로 오듯이 강조된 모습이다. 특히 멀리 광교산 능선자락을 배경으로 하여 지붕과 처마의 은근한 곡선과 뻗어내린 선이 아름답다.



28 서일치 외부

29 총안에서 본 서북각루전경



서장대코스

30 서북각루 (西北角樓)



30 성밖에서 본 서북각루



30-1 성안에서 본 서북각루



각루(角樓)는 비상시에 각 방면의 군사지휘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성곽의 중요한 요소에 위치하여, 성 주변과 밖의 원거리까지 조망할 수 있는 시설로 모두 4개소가 있다.

서북각루는 화서문 서남쪽 약 170m거리의 팔달산 복쪽 중턱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화서문 일대의 군사를 지휘하기 위해 만들었다.

아래층 일부에는 온돌방을 두어 수직(守直)하는 군사들이 숙식을 하며 거쳐하게 하였다.

2층은 마루방으로 되었으며, 벽의 판문에는 안쪽으로는 태극문양을, 바깥쪽으로는 짐승의 얼굴을, 그리고 화살구멍을 뚫어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하였다.

축조비용은 411량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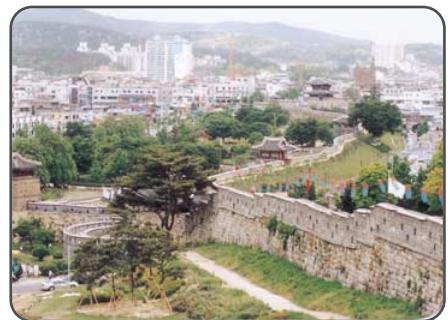
31 서북각루에서 본 전경

서북각루 안에서 본 경관이다. 팔달산 꼭대기인 서장대 방향으로 본 경관과 반대쪽 방향으로는 화서문, 광교산, 북포루, 북서포루, 장안문, 방화수류정 그리고 동부공심돈까지 보인다. 화서문과 서북공심돈을 바라보는 경관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바로 옆에는 야생화단지와 보행자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사계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31 서장대 방향전경



31-1 광교산 방향 전경

[사진 32] 서북각루 < 화서문 전경

서북각루를 둘러싼 북측 타(성가퀴)의 성안쪽에서 2번째 총안이나 2번째 타구(타와 타 사이에 길다란 직사각형으로 만든 틈)에서 화서문방향으로 본 전경이다.

근경으로 지형을 따라 내려간 화성 서쪽 성벽과 오솔길, 중경에 화서문 옹성과 서북 공심돈, 그리고 원경으로서는 장안문과 그 위의 광교산 능선자락이 화성의 진면목 중 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33] 서북각루 앞 <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서북각루와 화서문을 연결하는 육교에서 서북각루쪽으로 휘어진 1번째 타구에서 본 경관이다.

절제된 화서문 주변경관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화서문 옹성과 홍예문이 돋보이고, 서북공심돈 문루의 윤곽과 수직성벽의 조화가 예술적 구성으로 다가온다.

[사진 32] 서북각루 북쪽 총안에서 본 화서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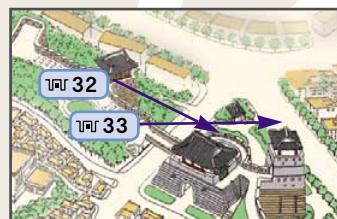
②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코스 : 화서문과 화홍문 사이의 견고한



평성(平城)코스

장안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그리고 화홍문이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다. 서북공심돈코스는 약 1,040m이며, 40분정도 소요된다.

[사진 33] 화서문 육교 위 타구서 본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서북공심돈코스 전경〉



34 화서문 (華西門)

화서문은 화성의 서쪽대문으로서 그 원형을 잘 유지하여 보물 제40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문은 석축으로 된 무지개 문 위에 단층 문루가 세워져 있으며, 팔달문이나 장안문과는 다르게 문의 전면에 벽돌로 쌓은 반월형 옹성이 한쪽이 터진 모양으로 열어두고 별도의 문을 두지 않았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서 아담하고 우아한 멋을 풍기고 있다. 옹성안 홍예문 쪽에서에서는, 성문을 맡아 건설한 사람들과 책임자들을 기록한 실명판을 볼 수 있다.

화서문(華西門)은 성문 앞의 옹성과 북쪽으로 이어지는 성벽 끝에 놓인 서북공심돈과 함께 어우러져 짜임새 있는 건축 조형미를 창출한다. 서북각루(西北角樓)에서 바라보는 화서문의 경관은 화성(華城)이 자랑하는 풍경(風景) 중 가장 유품이라고 할 만 하다.

화성은 1795년 7월 21일 묘시(6시)에 터닦기 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11월 13일 홍예가 이루어졌으며, 이듬해인 1796년 1월 8일에 문루가 완공되었다.

화서문을 만드는데 든 비용은 4대문 중 가장 적은 12,668냥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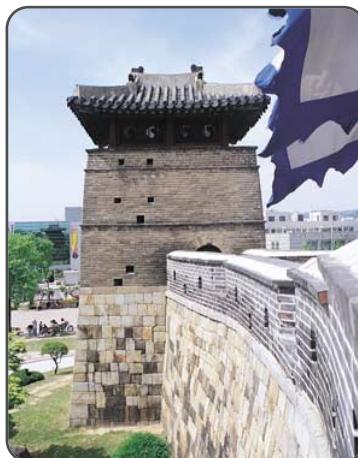
34-1 화서문(서문) 현판



34 서북각루 앞에서 바라본 화서문

35 서옹성 < 서북공심돈

서옹성 초입부에서 서북공심돈 아래쪽을 보았다. 서북공심돈의 아래, 중간, 위의 구성 형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아래부분은 돌로 쌓았고, 중간 위부터는 벽돌로 쌓아 중간 중간 총포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 벽돌과 돌을 합쳐서 사용한 화성의 특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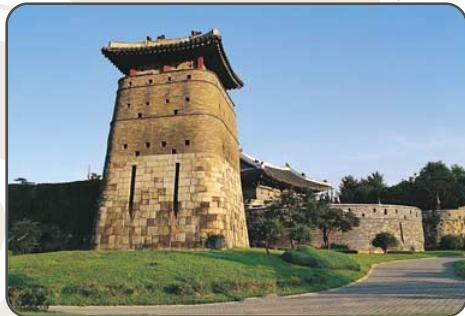


35 서옹성 초입부에서 본 서북공심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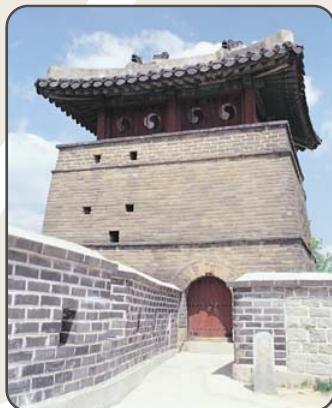


35 서북공심돈코스

36 서북공심돈 (西北空心墩)



36 북쪽에서 바라본 서북공심돈



36-1 서북공심돈 입구(화예문)



36-2 서옹성에서 본 서북공심돈

공심돈(空心墩)은 화성을 가장 인상깊게 만들고 축조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시설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수원의 화성(華城)에서만 볼 수 있는 전축물이다.

공심돈(空心墩)이란 글자의 뜻대로 하면 속이 빈 돈대(墩臺: 높이 쌓아 망을 보는 시설)라 할 수 있다. 공심돈은 4면 벽체를 구성하면서 그 가운데는 3층을 사다리를 통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했고, 중앙부는 빈 공간으로 두어 공격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군사용 시설물이다.

외부벽체에는 구멍을 많이 뚫어 바깥의 동정을 엿보며 공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불랑기(대포의 일종), 백자총(총의 일종)을 발사하여도 적으로서는 어느 곳에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서북공심돈은 화서문 방면의 방어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치성위에 벽돌로 대를 쌓고 그 위에 팔작지붕의 집(망루)을 지었다. 돈대는 삼층으로 하고 층마다 벽면에 포혈 20개씩을 내었으며, 서쪽과 북쪽 2면에 혼안 두 개씩을 내었다. 상층의 벽면위쪽은 판자로 판문을 둘렀으며, 판문마다 전안(화살구멍)을 뚫었다. 아래층에는 전돌로 작은 홍예문을 만들어 출입하도록 하였다. 화성에는 서북공심돈과 동북공심돈, 남공심돈 3개의 공심돈이 있는데, 남공심돈은 현재에는 남아있지 않다. 1797년(정조21) 1월 원행시 정조는 성을 순행하며 신하들에게 ‘우리나라에 처음

으로 만든 공심돈이니 마음껏 구경하라’고 하며 만족감을 표시한 시설이기도 하다.

서북공심돈은 화서문과 어우러져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다.

1796년(정조20) 3월 10일 완공되었으며, 총 3,530냥의 비용이 들었다.

● 수원춘팔경

『대유농가』(大有農歌) : 농요소리가 들려오는 대유평 들녘 대유평은 수성고등학교와 수원상의가 있는 지역의 들판으로 정조시대에 국영농장인 둔전(屯田)을 일구었던 곳이다.

대유둔의 북에는 정조대왕이 만든 완벽한 인공수리시설인 만석거가 있어 가뭄에도 끄덕없이 선진적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넓은 들판엔 활기찬 농요소리가 넘쳐났다. 대유농가는 이런 정경을 말하는 것이다.

● 수원추팔경

『석거황운』(石渠黃雲) : 누렇게 벼가 익어 황금물결을 이룬 만석거 주변의 풍광. 만석거 주변에는 정조시대 대규모 국영농장인 대유둔(大有屯)을 설치해 넓은 들판을 이루었는데 추수기에 황금빛 벼이삭이 가을 바람에 일렁이는 장관을 석기황운이라 했다.

지금은 아파트와 건물들의 숲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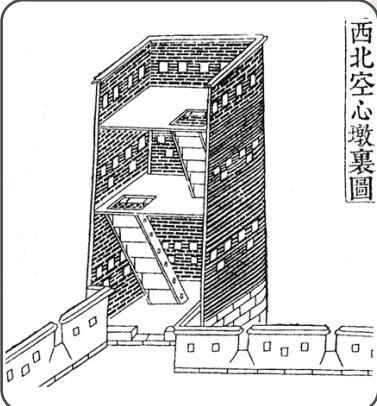
36-3 서북공심돈과 화서문 그리고 용성

西北空心墩內圖



36-4 서북공심돈 내도 (화성성역의궤)

西北空心墩裏圖



36-5 서북공심돈 배면도 (화성성역의궤)



37 한개 협안이 보이는 북포루



38 북포루 총안에서 본 서북공심돈

37 북포루 (北嬪樓)

포루(嬪樓)는 치성 위에 지은 집(누각)을 말하며, 군사들을 숨겨서 적군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화성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5개소 있으며, 포루(砲樓)와 비슷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나, 치성부분을 전돌(벽돌)로 만들지 않고, 석재(돌)로 만든 것이 차이이다.

북포루는 서북공심돈과 북서포루(北西砲樓)의 중간에 만들어서, 그 범위의 성벽에 다가서는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성에 협안 1개를 내고, 그 위에 문루를 만들었다. 문루 밑으로 각각 포(砲)를 쓸 수 있는 구멍을 내어서 방어와 공격능력을 갖추었다. 1795년(정조19)2월 20일 완성되었으며, 축조 비용은 2,955냥이다.

●북은구 (北隱溝)와 북지 (北池)

은구는 ‘숨겨진 도량’이란 뜻으로 성안의 물 흐름을 조절, 관리하기 위한 비밀배수구이다. 화성에는 남은구와 북은구의 2개 은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남은구는 남지(南池)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고, 북포루 동쪽 37보 지점에 있었던 북은구는 북지(北池)에 물을 대는 배수구역할을 하였다.

화성 안에는 모두 세군데 5개의 연못이 조성되었다. 남지, 동지가 2개씩 그리고 북지가 있었으며, 성밖에는 용지(龍池)가 있어 당시의 진경문화와 화성의 훌륭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북지는 연못에 수초와 연꽃을 심고 가꾸어 수원팔경중 북지상련(北池賞蓮: 연꽃이 곱게 피어난 북지)이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었던 곳이다.

38 북포루 < 서북공심돈

북포루안의 서쪽 총구에서 서북공심돈 방향으로 본 전경이다. 평탄한 지형위에 굳건하게 만들어진 성벽을 볼수가 있으며, 끝머리에 서북공심돈이 돋보인다.

북포루 바닥아래의 서쪽 4번째 총안에서의 조망도 좋다.

39 북포루 < 북서포(砲)루

북포루안의 서쪽총구에서 북서포루 방향으로 본 전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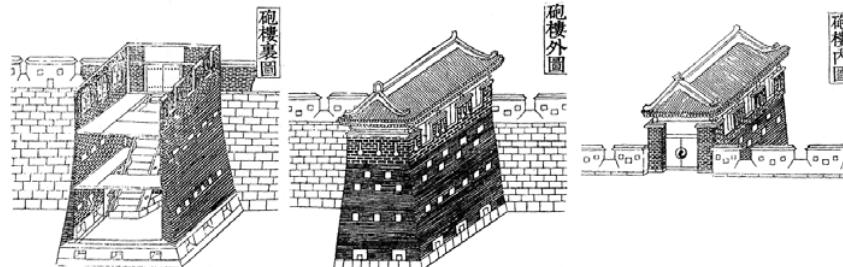
북포루 바닥아래의 동쪽 2. 3. 4번째 총안에서 북서포루로 본 경관도 좋다.

평지인데도 일직선으로 성을 쌓지 않고 구불구불 자연스러운 곡선의 축성모습을 볼 수 있다. 화성 중 북쪽성벽이 가장 높으며, 큰 돌을 사용하고 치밀하게 쌓아 올려서 북쪽으로부터의 방비를 굳건히 했음을 알 수 있다. 장안공원의 푸른 잔디, 성곽을 둘러싼 담쟁이나무 등의 모습이 화성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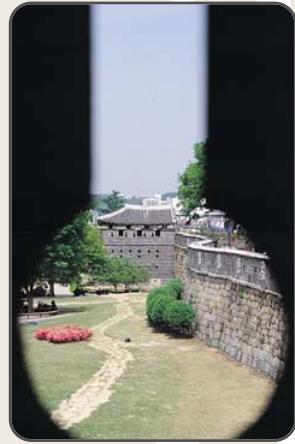
40 북서포루 (北西砲樓)

북서포루는 장안문에서 성벽을 따라 화서문쪽으로 가면 북서적대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156보 되는 거리에 설치된 포루이다. 성곽 시설물중 가장 중무장된 시설로서 장안문과 화서문 사이에 축조되어 화성의 서북쪽을 방어하는 시설이다.

1794년(정조18) 9월 24일 준공되었으며, 축조비는 3,308냥이 사용되었다.



40-1 화성성역의궤에서의 북서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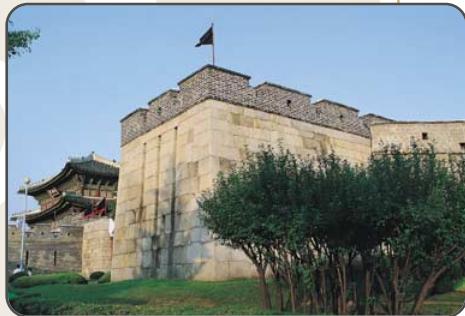
39 북포루에서 본 북서포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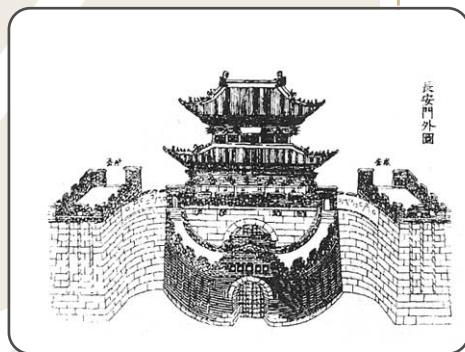
40 전돌로 방어력을 강화한 북서포(砲)루

서북공심돈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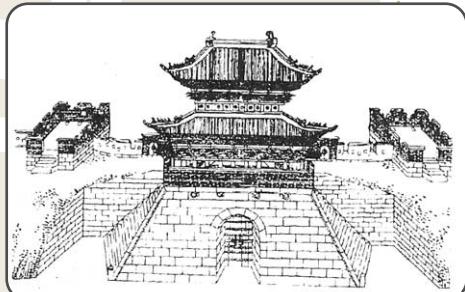
41 [북서적대] (北西敵臺)



41 장안문서쪽의 북서적대



41-1 장안문과 적대외면도 (화성성역의궤)



41-2 장안문과 적대내면도 (화성성역의궤)

적대(敵臺)는 성문과 옹성에 접근하는 적을 막기 위해 성문의 좌우에 설치한 방어시설물이다. 성곽보다 다소 높은 대를 마련하여 창이나 활, 화살 등을 비치해두는 한편 적군의 동태와 접근을 감시하는 곳으로 옛날 축성법에 따른 성곽 시설물이다.

적대는 치성위에 세운 시설로서 4대문중 장안문좌우(북성적대)와 팔달문좌우(남성적대)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남성적대는 팔달문좌우의 성벽과 적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복원하지 못하였다. 북성적대 성벽에는 3개의 협안(적대에 길게 뚫은 구멍)을 두고 있어서 팔달문보다 방어력에 비중을 두었다.

1795년(정조19) 2월 28일 북서적대가 완성되었으며, 1967년 보수되었다.
당초 축조비는 4,743냥이 되고 있다.



북서포루 성안에서 본 장안문

장안문은 화성의 북쪽문으로 사실상의 정문이라 할 수 있다.

팔달문과 함께 화성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다. 장안(長安)은 수도라는 뜻과 국가의 안녕을 상징하는 문자로 쓰였으며, 장안의 영화를 화성에서 재현하려 한 뜻을 가지고 있다.

장안문과 팔달문은 기초다지기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 모래와 진흙에 물을 섞어 다지면서 시루떡 앉히듯이 켜켜로 쌓아 올라와서, 장안문 화강석기단과 문루의 무게는 물론 도시화에 따른 자동차 물결이 남기고가는 충격까지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 문루의 지붕형식은 각 처마가 한데 모여지는 우진각지붕으로 웅대함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중층문루의 골격구성은 서울의 숭례문(남대문), 흥인지문(동대문)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성문의 규모는 이들보다 약간 큰 편이다. 지방의 성문을 도성의 성문보다 더 큰 규모로 축성한 것으로 보아 화성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옹성은 벽돌로 쌓았는데 옹성은 서울의 동대문에도 있어서 옹성의 출입구를 한쪽 모서리에 낸데 비하여, 이 북옹성은 장안문의 출입문과 마주 보이는 중앙위치에 둔 것이 특색이다.

북옹성 홍예문 상부에는 오성지(五星池)라고 불리는 구멍이 5개 뚫린 일종의 물저장고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적이 성문을 불질러 파괴하려고 하는 공격에 대비, 이 구멍으로 물을 쏟아부어 성문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장안문은 화성의 정문이라는 상징성 이외에도 전통신양의 발자취도 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다. 성문의 안쪽 윈幡아래 기단석에서는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만들어진 성혈(性穴)을 찾아볼 수 있다.

성의 규모와 구조등은 팔달문과 거의 같으며, 한국전쟁시 문루가 불타 훼손될 것을 1975년 축성기록서인 ‘화성성역의궤’에 의거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안문은 1794년(정조18) 2월 28일 진시(8시)에 터 다지기공사에 착수하여, 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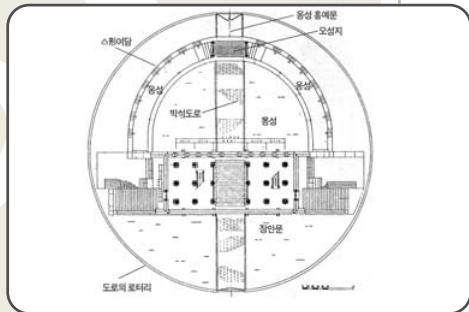
42 장안문과 북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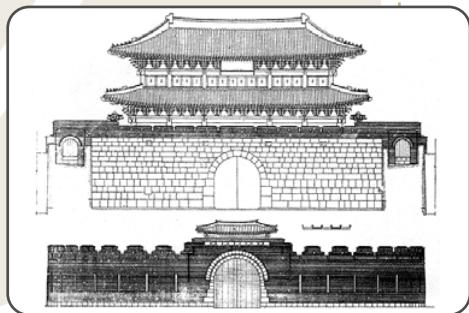
42-1 장안문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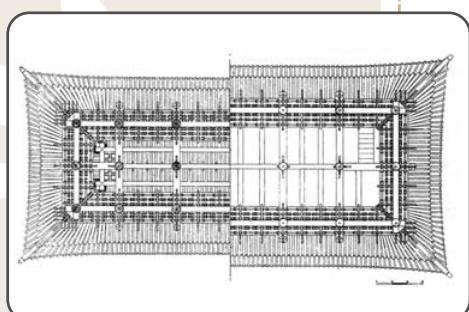
42-2 처마의 잡상과 곡선



42-3 장안문 1층과 옹성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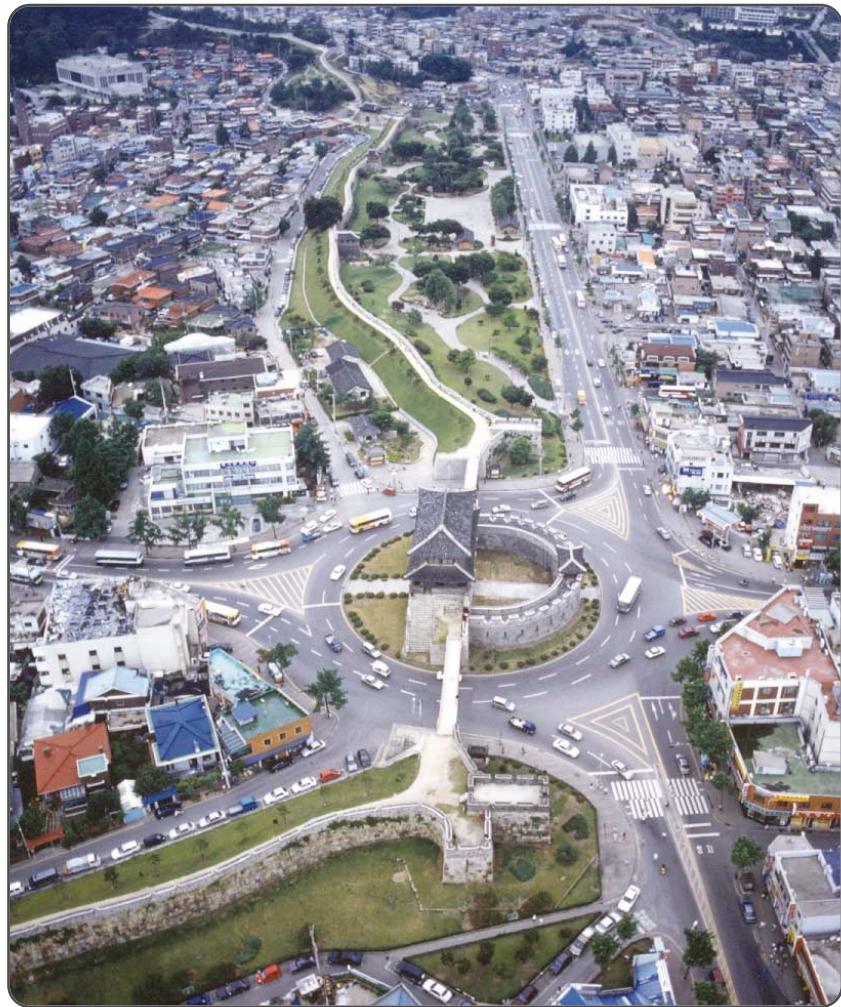
42-4 장안성과 옹성을 실측한 입면도



42-5 장안문의 1·2층 천장 구조를 올려다본 암시도

8월 15일에 상량하고 9월 5일 2층 문루까지 모두 완성되었다.

축조비용은 장안문 50,890냥, 북옹성 15,608냥이 들어 모두 66,498냥이 쓰여졌으며, 이는 팔달문(68,127냥)에 이어 화성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사비용이 소요된 것이다.



〈장안문 전경〉

43 북동적대 (北東敵臺)

북문인 장안문 북동쪽 50m거리에 위치한 북동적대는 시설이나 용도 및 규모가 북서적대와 거의 같다. 적대는 성곽보다 높게 만들어서 적군의 동태와 접근을 감시하였으며, 밖으로 3개의 현안을 뚫고 총안을 만들어서 유사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북동적대는 1795년(정조19) 2월 28일에 완성되었으며, 1968년에 보수하였다. 북동적대는 4,682냥의 비용이 들었다. 현재 북서적대와 북동적대에 만들어져 있는 홍이포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홍이포 (紅夷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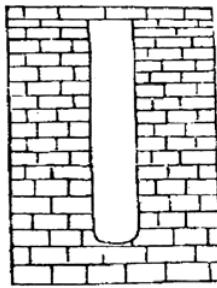
16세기 중국 명나라를 통해서 전래된 중화기로 네덜란드인이 사용했던 화포라고 하여 ‘붉은 오랑캐의 화포’ 즉 홍이포라 불렸다.

포구에서 화약과 포탄을 장전한 다음 포 뒤쪽 구멍에 접화하여 사격하는 포구 장전식 홍이포로 조선 영조때부터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화약의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이 날아가나 포탄자체는 폭발하지 않아 위력이 약했다. 길이는 2,150mm이고, 구경은 100mm이며, 중량은 1800kg, 사정거리는 700m이다.



43 44 북동적대(전면)와 북동치(측면)



43-1 현 안 (화성성역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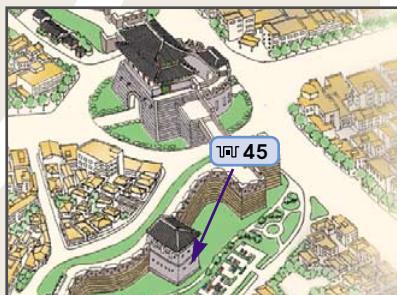


44 북동치 (北東雉)

북동치는 북동적대 바로 옆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이는 북동적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안문과 방향이 틀어진 북동포루(北東砲樓)주변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동치를 축조하는데는 2,150냥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45 북동적대옆 북동치 < 북동포(砲)루, 방화수류정, 각건대 전경

북동적대에서 북동치으로 접어들면서 북동포루 방향의 첫 번째 두번째 타구에서 본 경관이다. 높고 굳건한 성벽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안정감있게 축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벽돌로 축성된 중무장의 북동포루가 중앙으로 보인다. 연이어서 방화수류정(동북각루)으로 연결되고, 그 윗부분 높은 지형의 돌출된 각건대(동북포루)모습이 뚜렷하다. 방화수류정의 화려한 이미지와 함께 각건대의 검소하고 단아한 이미지가 대비되는 상대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45 북동치 타구에서 본 북동포루, 방화수류정, 각건대전경

46 [북동포루] (北東砲樓)

북동포루는 장안문과 화홍문(복수문)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본래의 성곽도 보존되어 있으나 누각은 인멸되어 새로 복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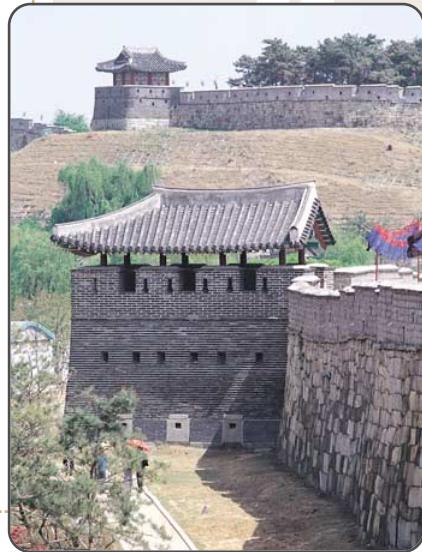
포루는 성벽에서 돌출되게 하여 화포의 공격에 유리한 벽돌을 이용, 3중층으로 지은 누각건물로 화포를 감추어두고 위 아래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포루는 3층으로서 지면위에 혈석(穴石 : 대포발사를 위해 구멍을 뚫은 돌)을 전면 2개, 좌.우 3개씩 성벽중간에 총혈 15개, 상부에 문루 3칸을 만들어 총안과 전안(활을 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아 화성시설물중에서 가장 중무장된 시설이다.

북동포루는 성외측은 우진각지붕이고 성내측은 박공지붕으로 하였다.

화성에는 5개소의 포루(砲樓)가 있는데 북동포루는 장안문과 화홍문의 범위를 방어 구역으로 하고 있다.

북동포루는 1794년(정조18) 9월 23일 준공되었으며, 3,188냥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46 중무장기능을 갖춘 북동포루 전경
멀리 각전대가 보인다.



46-1 성안쪽에서의 북동포루



46-2 남쪽에서 본 북동포루

화성탐방코스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원천을 중심으로 서쪽화성의 형태를 거북(龜)형상코스, 동쪽화성형태를 용(龍)형상코스로 정하여 접근하였다.

용(龍)형상코스 : 수원천을 중심으로 동쪽화성의 형태이다.

즉, 용두암, 방화수류정을 용의 머리와 눈, 용연의 작은섬을 용이 물고있는 여의주, 각건대, 동장대, 동북공심돈, 창룡문과 연결되는 구불구불한 지형을 용의 몸통과 다리, 봉돈, 그리고 동남각루를 통하여 수원천에 꼬리를 드리우고 있는 용의 형태로 본 형상.

→ ③ 방화수류정코스 + ④ 봉돈코스를 연결하는 코스

〈화홍문→방화수류정→각건대→동장대→동북공심돈→창룡문→봉돈→동남각루〉

③ 방화수류정(防花隨柳亭)코스 : 화홍문과 창룡문 사이의 구릉지를 이용한 산성(山城)코스



방화수류정은 낮으막한 구릉지를 잘이용한 산성(山城)으로서 전부곡선을 이루고 있다. 용연과 방화수류정의 조화는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안문과 창룡문에 새로이 조성되는 주차장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코스이다. 방화수류정코스는 약 1,210m로서 대략 50분정도가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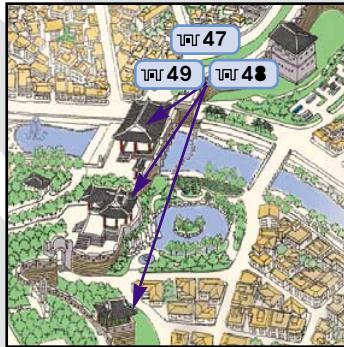


황룡기(黃龍旗)





47 화홍문 서쪽타구에서 본 동북각루(방화수류정)



48 동북포루(각간대)전경

47 화홍문 서쪽타구 < 방화수류정(동북각루)

최근 복원된 화홍문 동쪽으로 연결되는 타구에서 방화수류정으로 본 경관이다.

조선후기 정자건축의 압권이라 부르고 있는 방화수류정을 투박한 섬돌로 둘러싸인 타구로 관망하였다. 방화수류정의 큰 특징 중 하나인 복잡한 지붕형태의 아름다움, 단청의 고운 색, 측벽의 벽돌로 만들어진 십자문양 등을 방화수류정으로만 압축하여 조망하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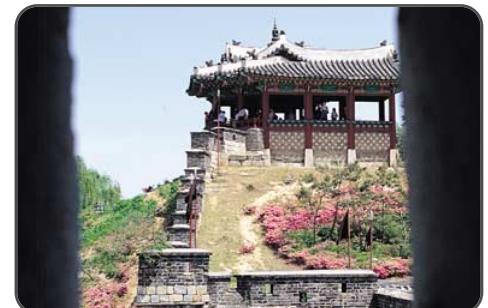
48 타구 옆에서 본 각간대 모습이다.

방화수류정과는 달리 지붕선의 단순함, 누각을 받치고 있는 성벽구조의 평범한 선이 오히려 대비되어 상대적인 아름다움이 살아난다. 그래서 불국사 다보탑과 석가탑에서 보아질 수 있는 느낌을 방화수류정과 각간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방화수류정과 각간대 사이에는 사랑의 긴장이 흐르고 있다. 음과 양을 대비하여 균형과 통일감을 잡아주고자 했던 선조들의 심미안을 발견 할 수 있다.

49 화홍문 서쪽 총안 < 방화수류정

화홍문에서 동쪽의 장안문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자마자 꺾어진 곳의 가까운 총안에서 본 방화수류정이다. 각도가 낮아서 화홍문처마와 방화수류정을 올려다 본 경관이다. 화홍문 흥에 위로 쌓아올린 벽돌이 우측전면으로 보이고, 방화수류정까지 급한 경사를 따라 여러 개의 단계를 이룬 타(성가퀴)의 모습이 실용성과 아울러 조형적인 아름다움으로 연결되고 있다.



49 화홍문 서쪽 총안에서 본 동북각루
(방화수류정)

50 [북수문] (北水門) : 화홍문(華虹門)

누각의 현판에 화홍문(華虹門)이라 되어있어 화홍문이라고도 한다.

화성에는 광교(光敎)산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수원천)이 성안을 관통하고 있어, 이를 건널 수 있게 할 북수문(北水門)과 남수문(南水門)을 계획하였다.

‘화’(華)자는 화성을 의미하고 ‘홍’(虹)자는 무지개를 뜻하는 글자인데, 용의 수컷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홍문은 석교로 7개의 홍예문을 내었는데 중앙으로 올수록 넓고 크게 만들어 홍수기의 물살을 흡수하도록 하였고, 자연스러운 건축미를 창출시켰다.

다리 아래의 홍예를 살펴보면 물을 받아들이는 바깥쪽 홍예의 지지석이나 돌기둥 중 물이 마주치는 것은 마름모꼴로 만들어 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였으며, 수문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쇠로 만든 전문(箭門)을 설치하였다. 수문 남쪽 하천바닥은 돌을 깔아 2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닥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해 왔다.

1794년(정조18) 2월 28일 장안문, 팔달문과 함께 화성시설 중 가장 일찍 공사에 착수하여 동년 8월 3일 수문의 석축구조가 이루어졌다. 10월 13일 문루의 대들보를 엊었으며, 1795년(정조19) 1월 13일에 화홍문 누각이 완성되었다.

화홍문공사비는 총 30,940냥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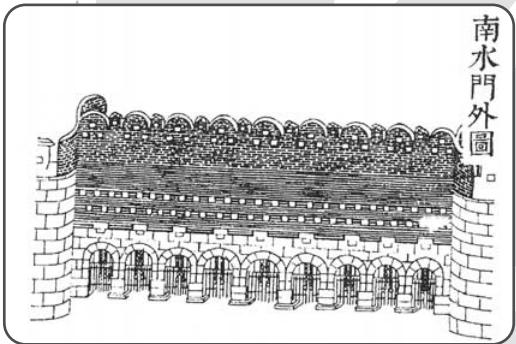
북수문은 화강암으로 쌓았고, 남수문은 벽돌로 쌓았는데 남수문은 1922년 7월 대홍수로 유실된 이후 아직까지 복원되지 못하였다.



50-2 서남방향에서 본 북수문(화홍문)



50 북수문(화홍문) 현판



50-1 남수문 (화성성역외궤)

● 수원춘팔경

» 유천청연 (柳川晴烟) : 맑은 날 물안개 낀 수원천의 풍경. 유천(柳川)은 수원천의 또 다른 이름이고 청연(晴烟)은 맑게 개인 날의 물안개라는 뜻이니, 안개가 걷히고 봄바람에 유천가의 수양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광교산에 겨우내 쌓았던 눈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봄기운이 퍼지면 아직 차가운 물위로 물안개가 깔린다. 맑은 날 물안개 낀 수원천의 풍경은 신비함을 불러 일으킨다.



50-3 서북방향에서 본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 수원추팔경

» 홍저소련 (虹渚素練) : 화홍문 홍예 수문으로 흰 비단을 펼친 듯 물살이 장쾌하게 쏟아지는 초가을의 정경이 수원 추팔경의 제1경. 수원천의 맑은 물이 석축을 따라 흰물살을 이루면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마치 흰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다는 것으로, 이 경관은 후에 '화홍관창(華虹觀漲)' 이란 이름으로 수원팔경이 되었다. 비가 많이 오고 난 후면 지금도 볼 수 있다.

● 수원팔경

» 화홍관창 (花虹觀漲) :

화홍문이 일곱 수문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물안개를 일으키며 햇살에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움을 말한다.

» 남제장류 (南堤長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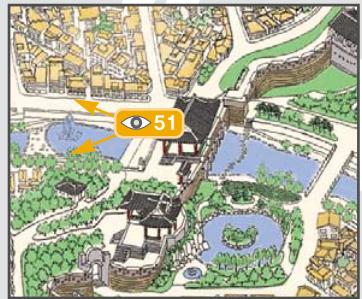
화홍문에서 수원천을 따라 긴 제방에 끝도 없이 늘어선 버드나무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51 화홍문에서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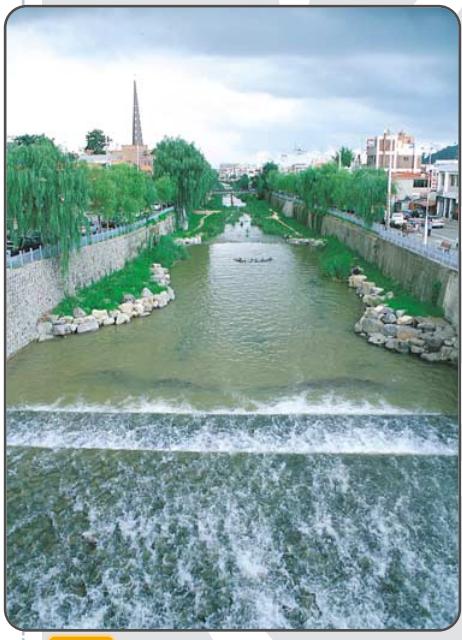
화홍문누각에 앉으면 수원 8경중에서 화홍관창(華虹觀漲 : 화홍문의 비단결폭포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수원 춘8경에서도 유천청연(柳川晴煙 : 맑은날 물안개 낀 수원천의 풍경), 오교심화(午橋尋花 : 꽃놀이가 한창인 매향교), 수원 추8경에서는 홍저소련(虹渚素練 : 흰 비단을 펼친 듯 물살 장쾌한 화홍문의 경관)으로서의 경관이 일컬어지고 있다.

더구나 방화수류정(동북각루)의 화려한 모습과 지형을 따라 올라간 타의 단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 할 수 있다.



51-1 화홍문과 방화수류정과 각건대



51 화홍문에서 본 남쪽 수원천 전경

52 동북각루 (東北角樓) :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본래의 이름은 동북각루이나 편액을 방화수류정(전 참판 조 윤형 씀)이라 쓴 이후 방화수류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방화수류정이란 ‘꽃을 찾고 베드나무를 따라 노닌다’는 뜻이다.

각루는 모퉁이에 지어진 다락집이란 뜻으로 성곽부분 가운데 높은 구릉을 택하여 누각모양의 건물을 세워 주위일대를 지휘하고, 때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다. 화성에는 4곳(동북각루. 동남각루. 서북각루. 서남각루)의 각루가 배치되어있다.



방화수류정은 화홍문의 동쪽 언덕정상의 용두(龍頭)바위 위에 터를 잡고 있으며, 성 바깥쪽의 용연(龍淵)과 어우러져 주위로 경관이 수려함은 물론, 전략상으로도 중요한(비상시에 군사지휘소 역할) 지형에 위치해 있다. 동북각루는 그 형태가 불규칙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주위의 자연 경관과도 아름답게 어울려 조선시대 정자 건물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걸작 가운데 하나이다.

자연의 절벽위에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벽돌로 벽을 쌓아 총안을 뚫고, 목조의 누각을 세운 구조를 하고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의 껏이고 펼쳐지는 것이 여려겹으로 전개되어 우리나라의 다른 건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빼어난 건축미를 보여주고 있다. 하층은 아래는 석축을, 그 위로 전축을 했으며, 1칸은 온돌방이고 성 바깥쪽으로 총안을 뚫어 놓아 방위력을 갖추었다.

정자 앞으로는 활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1795년 을묘원행시에 정조는 이곳에서 화성성역의 중간 평가를 하면서 화성유수 조심태의 노고에 치하하고, 활쏘기를 하였다.

1797년 행차시에도 정조는 화성을 순행하다가 이곳에서 활쏘기를 하고, 신하들에게 술을 내고 화성성역의 노고를 치하하며 칠언시(七言詩)를 지은 뒤 신하들에게 화답하게 하였다.

방화수류정은 1794년(정조18) 9월 4일 진시(8시)에 터 닦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7일에 상량하고 10월 19일 완성되었다.

동북각루의 공사비는 5,352냥이 들었는데 동남각루(410냥), 서북각루(411냥)에 비해서 10배이상 소요되어서 공사담당자가 정조에게 불려가서 문책 당했다는 일화를 가지고 있다. 한편 소신있게 공사를 시행했다는 일면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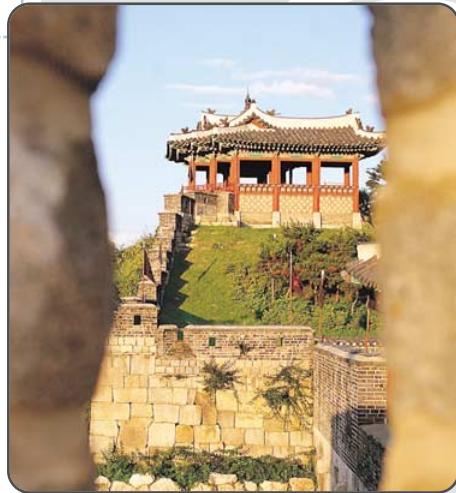
● 수원팔경

» 용지대월 (龍池待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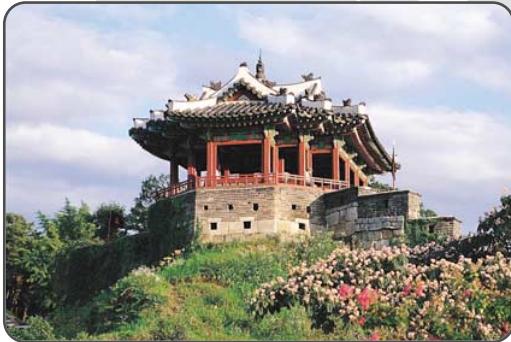
방화수류정 아래의 연못에 방화수류정의 그림자와 함께 비치는 달의 모습을 말하기도, 달의 모습을 바라보는 정취를 말하기도 한다.

● 방화수류정에서 임금님이 지은 시문 (어제 ; 御製)

봄날의 성을 두루 돌아도
해는 아직 기울지 아니하고,
방화정의 풍치는
갈수록 맑고 아름답구나,
성상께서 머물러
궁무를 익히시니,
만 그루 벼들의 그림자 속에
꽃혀 있는 화살은 꽃과도 같구나.



52 화홍문 서쪽 타구에서 본 방화수류정



52-1 꽃과 어울리는 방화수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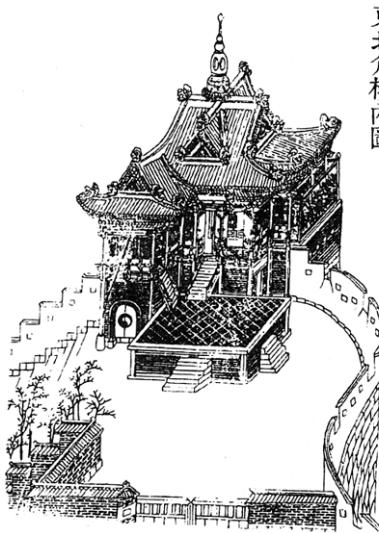
53 방화수류정에서의 전경

이곳에 오르면 수원8경 중 5경을 만날 수 있다.

즉 광교적설(光敎積雪 : 흰 눈 덮인 광교산의 장관), 용지대월(龍池待月 : 방화수류정 옆 용연에서의 달맞이), 팔달청람(八達晴嵐 : 안개에 감싸여 신비로운 팔달산), 화홍관창(華虹觀漲 : 장쾌한 물보라가 넘쳐나오는 화홍문), 남제장류(南堤長柳 : 남제의 긴 베드나무 숲길)이다.

방화수류정에서는 팔달산의 서장대를 비롯하여 봉돈, 동북공심돈, 동장대, 각진대, 화홍문, 장안문 등을 조망 할 수 있다.

수원춘팔경과 추팔경, 수원 8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곳은 화성에서도 가장 운치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어서 풍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곳이다. 용연(龍淵)과 연결된 용두(龍頭)바위를 기반으로하여 세워진 방화수류정은 마치 용(龍)의 눈과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과 같은 중요한 곳이다. 용연 가운데 있는 동그란 원형의 조그만 인공섬은 아마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쯤이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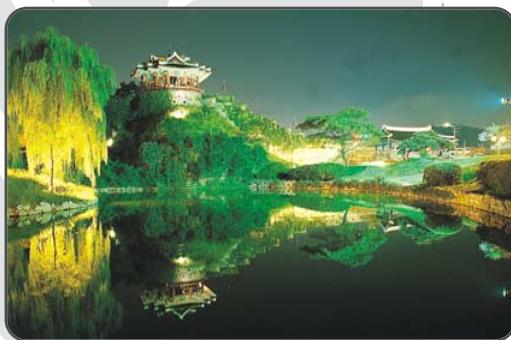
52-2 동북각루 내도 (화성성역의궤)







54 용연과 방화수류정(낮)



54-1 용연과 방화수류정(밤)



54-2 화성성역의궤에서의 동북각루

방화수류정의 바로 아래쪽의 절벽(용두암)과 용연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어 화성(華城)의 꽃이라 불리운다.

꽃을 찾고 벼들을 쫓는다는 방화수류정에서 정자아래쪽 절벽 끝에 조성된 용연의 반 달처럼 휘어진 연못 한가운데 작은 섬이 어울려 만들어 주는 아름다운 경관은 달빛을 따라 선녀가 하강하는 듯한 환상에 잠기게 한다. (수원 8경의 용지대월(龍池待月) 방화수류정의 그림자가 용지수면에 떠오르면 무아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수면에 오른 달을 바라보며 정자에서 마시는 가을밤 술맛의 취홍은 얼마나 도도하랴.

● 수원추팔경

➤ **용연제월** (龍淵霽月) : 달 밝은 가을밤에 즐기는 용연(龍淵)의 정취.

용연은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설물인 방화수류정 아래에 있는 연못이다.

달이 뜬 용연에서 방화수류정을 감상하는 정취는 무엇과 비기랴. 옆에 아리따운 정인(情人)이라도 있으면 그 정취는 더욱 환상적일 것이다.

이 경관은 뒤에 수원팔경의 용지대월(龍池待月)이 되었으며 방화수류정을 용연위에 띄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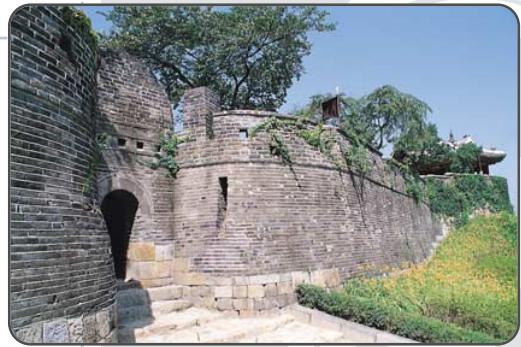


55 [북암문] (北暗門)

동북포루(東北嬾樓 : 일명 각건대)와 동북각루(東北角樓 : 일명 방화수류정)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지형은 방화수류정이 서있는 절벽이 급하게 휙 돌아가는 곳이어서 지형이 자연스럽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다.

여기는 화성(華城)에서 유일하게 벽돌로 좌우로 성벽을 쌓고 움푹 들어간 곳에 암문을 설치하였다. 성벽이 좌우로 휙어 암문에 접속되므로 성밖에서 암문을 보면 그림자가 생겨 가려지고, 또한 용연주변이 수목에 가려져 눈에 보이지 않도록 배치되어있다.

1796년(정조20) 3월 27일 홍예가 완성되었고, 축조 비용은 1,107냥이 소요되었다.



55 방화수류정 동쪽에 있는 북암문



55-1 동근 여장 아래 오성지가 뚜렷한 북암문

56 동북포루 (東北壤樓) : 각건대(角巾臺)



56 동북포루(각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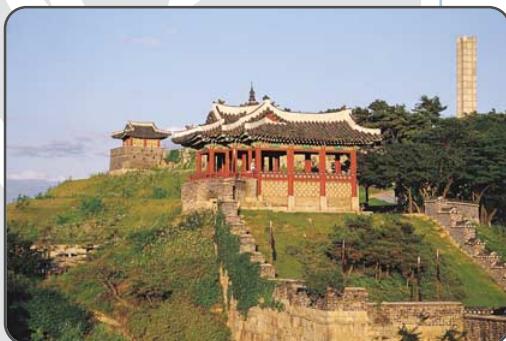
포루(壤樓)란 치성 위에 집을 지어 군사들이 비바람을 피하고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이다.

동북포루는 각건대(角巾臺)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생김새가 각진(선비들이 쓰는 모자)과 흡사하다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각건대는 전시에는 방화수류정에서 동장대까지를 엄호하지만, 평상시에는 방화수류정이나 화양루 같이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도 이용 할 수 있다.

각건대는 1796년(정조20) 5월 15일에 완성되었으며, 사용된 공사비는 2,775냥이다.

57 각건대(동북포루)에서의 동북쪽 성곽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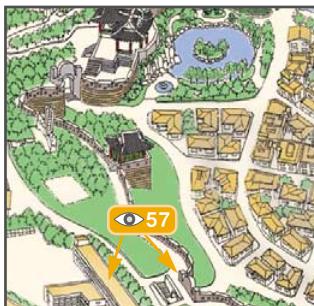
56-1 방화수류정과 각건대 – 여성적인 방화수류정과 남성적인 각건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각건대가 약간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지형에 따라 구불구불하게 만든 성곽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단차에 따라 단계적인 배치를 이룬 성가퀴의 모양, 지형의 생긴대로 축성하여서 직선이 하나도 없는 모습은 마치 용(龍)의 몸체(?)와 같은 느낌을 준다. 그 성곽에 붙어 있는 각건대, 동장대, 동북공심돈, 동북노대, 창룡문 등은 용의 다리(?)와 같은 연상적 생각도 가능할 것 같다.

각건대 앞에서 보는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 지붕의 날아갈듯한 위용이 돋보인다.

57 각건대앞에서 동장대로 본 전경



56-2 북암문쪽에서 바라본 각건대

58 동암문 (東暗門)

동북포루(東北壠樓 : 일명 각건대)와 동장대(東將臺 : 일명 연무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을 향하여 있다.

성벽은 안으로 굽어져 들어가 북암문과 같은 형태이고, 벽돌로 내외홍예를 쌓았다. 1796년(정조20) 3월 25일 홍예가 이루어졌으며, 1,712냥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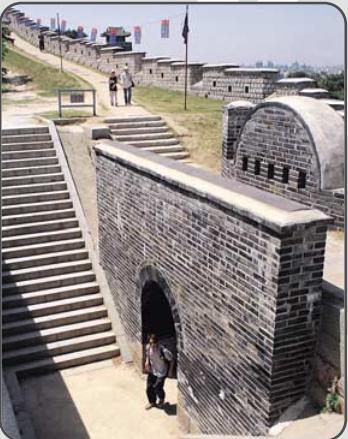
59 동장대 서쪽 < 각건대(동북포루)

동장대(연무대) 서쪽 문을 나와 그곳에서부터 각건대 방향을 바라본 정경이다. 지형을 이용하여 쌓아진 화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경사진 능선 위에 돌출되어 각건대가 세워져서 앞으로 전망이 탁 트였다. 각건대 좌측의 북암문, 우측의 동암문 사이를 엄호할 수 있다. 또한 방화수류정과 용연을 동쪽 방향에서 전망할 수 있어서 평상시에는 능히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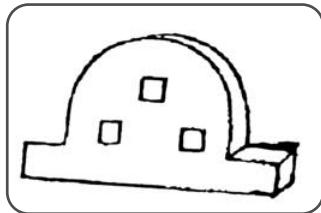
58 성안쪽으로 움푹들어간 동암문



58-1 통로가 직각으로 굽은 동남암문



59 동장대앞에서 각건대방향의 전경



58-2 동근성가퀴(원여장)



방화수류정코스

60 동장대 (東將臺) : 연무대(鍊武臺)



60 동북공심돈 방향에서 본 동장대



60-1 동암문 방향에서 바라본 동장대(연무대)



60-2 동장대의 구름조각 소맷돌(雲刻大)

장대는 사방을 내려다보면서 장수가 올라서서 군사를 지휘하는 곳으로 화성에는 서장대와 동장대의 두곳이 설치되어 있다.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를 훈련하고 지휘하는 곳이다. 동장대 왼쪽 담 밖은 넓은 조련장(동서 180보, 남북 240보)을 마련하여 말타기와 활쏘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장대는 화성 동쪽 동북공심돈과 동암문 사이에 위치하고 창룡문과 마주하고 있다. 화성 동쪽방면의 군사지휘소이면서 동시에 군사훈련장으로 편액을 연무대라고 하였다.

이곳은 지형이 높은 곳은 아니지만 사방이 트여있고 등성이가 솟아있는 곳이어서, 화성의 동쪽에서 성안을 살펴보는 전망이 좋은 군사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대에서 두 번째 대에 오르는 통로는 계단으로 하지 않고 경사지게 만들어 말을 타고도 직접 오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각(殿閣)의 내부의 바닥도 3개 층으로 두어 한칸씩 올라가면서 높아져 지휘하는 장수의 위엄을 고려하여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1796년(정조20) 1월 원행시에 정조는 동장대에서 활쏘기를 하고, 화성축성의 공로자들에게 상을 내렸다.

동장대는 1795년(정조19) 7월 15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7월 25일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 8월 10일에 상량하고 8월 25일 장대가 완성되었다.

동장대를 완성하는데 사용된 비용은 총 13,574냥이다.

● 수원추팔경

» 동대화곡 (東臺畫鵠) : 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연무대)의 정경. 곡(鵠)자는 가죽으로 만든 과녁의 가운데를 지칭하는 것으로 화살이 정중앙을 찌른다는 의미에서 정곡(正鵠)이란 말도 있다. 1796년(정조 20) 1월 능행차 때 정조대왕은 동장대에서 활쏘기를 했는데 이런 광경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활을 쏘는 방향은 다르지만 지금도 활쏘기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61 동장대에서 본 팔달산서장대. 동북공심돈 전경

동장대 안에서 정면으로 앉아 고개만 오른쪽으로 돌리면,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와 일직선으로 연결된다. 화성의 총사령부인 서장대와 화성동쪽의 지휘와 훈련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장대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시각선상을 유지함으로써, 더 분명한 지휘체계와 명령하달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뒷뜰로는 성벽과 동장대 사이에 영롱무늬의 담을 두르고 있어서 당시의 흙을 구워 만드는 기술과 미적 감각, 그리고 마치 병풍을 둘러 친것과 같은 안정감을 주고 있다. 동장대와 동북공심돈과 창룡문(동문)을 연결하는 넓은 틀을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하였었으며, 지금도 국궁활터와 전통무예전, 수원여름음악축제등 다양한 행사로 이용하는 장소이다.

수원추팔경에서는 동대화곡(東臺畫鵠 : 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 정경)을 추가하여, 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연무대)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62 동장대위 < 동북공심돈

동장대 뒤뜰 영롱담을 넘어서 동쪽 끝 모퉁이 타구에서 본 동북공심돈이다. 지형을 이용한 굴곡진 성벽과 그 위로 동북공심돈이 강조되고 있다. 화서문과 연결되어있는 서북공심돈과 마찬가지로 동쪽 끝에서 돋보이는 구조물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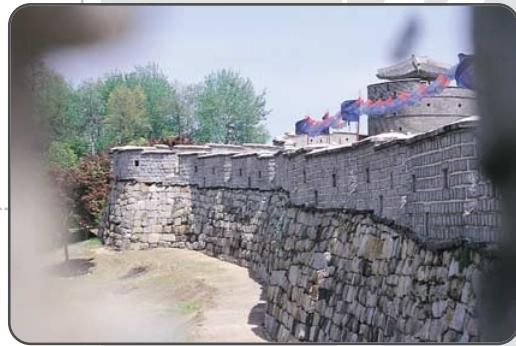
CO-3 동장대의 영롱무늬담(영롱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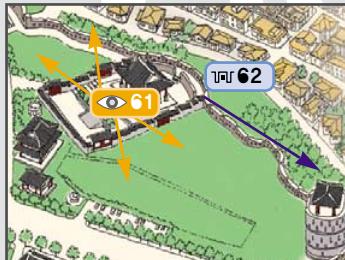
CO-4 동장대 뒤편 꽃담(영롱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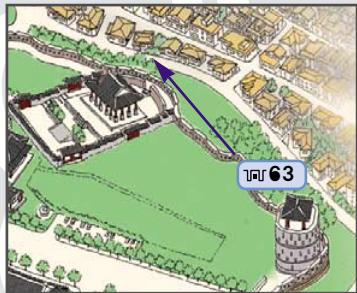
61 동장대에서 본 동북공심돈 전경



62 동장대 영롱담 밖 타구에서 본 동북공심돈 (소라각)전경



63 동장대와 동북공심돈 사이 < 각건대



동장대와 동북공심돈 중간의 밖으로 돌출된 지점에서의 타구로 본 경관이다.

동북포루(각건대) 그리고 지형에 따라 구불구불한 성곽과 단치를 이룬 타(성가퀴)의 정경을 볼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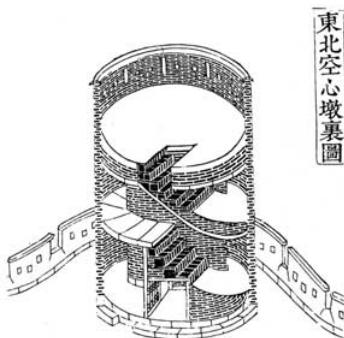
64 동북공심돈 (東北空心墩)

화성의 동문(東門)인 창용문의 북쪽, 성의 동편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형태가 둥글게 되어있는 것이 특색인데 화성(華城) 시설물중 평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시설물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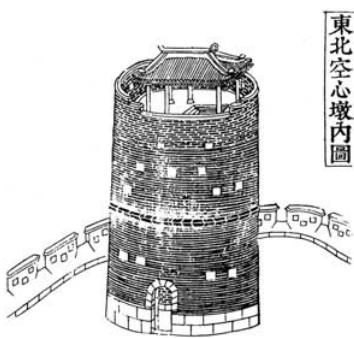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과는 달리 성벽 안쪽으로 따로 성벽과 떨어트려 돈대(墩臺)를 쌓아 만들었다. 이 공심돈은 내부에 나선형계단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명 ‘소라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층의 3면에는 상하 2단으로 총 약 40개와 포혈 23개를 뚫어서 공격할 수 있는 동시에 밖은 빛을 끌어들이는 구실을 겸하게 하였다.

상부에는 우진각지붕의 누각을 세웠고, 건물 내부 아래쪽의 공심돈 출입구 안쪽으로 온돌방을 만들어 군사들이 숙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96년(정조20) 7월 19일 완성되었으며, 공사비용으로 3,002냥이 소요되었다.



64-3 동북공심돈의 내부(화성성역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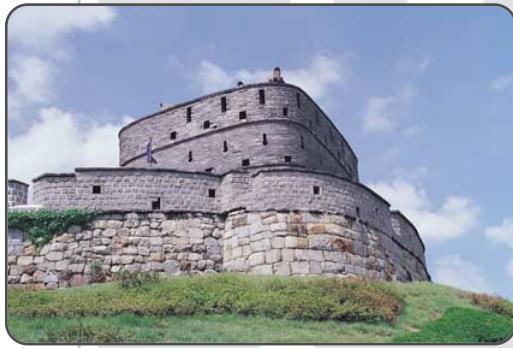
64-4 동북공심돈을 성내에서 본 모습
(화성성역의궤)



64 동장대에서 바라본 동북공심돈(소라각)



64-1 성안쪽에서 본 동북공심돈



64-2 성바깥쪽에서 본 동북공심돈

◀ 65 동북공심돈에서 본 전경



화성 동쪽 끝의 동북공심돈은 망루의 역할을 한다.

밖으로는 적의 동태를 살피며 공격을 하였고, 성안 내부로는 전시에는 아군의 동정을 파악하고 평상시에는 군사훈련을 통제하였다. 여기에서 월드컵구장 지붕의 멋있게 비상하는 날개모습을 볼 수 있다.



월드컵축구전용 경기장

◀ 65 동북공심돈에서 본 수원 월드컵 축구전용 경기장



66 [동북노대] (東北弩臺)

치(雉)위에 벽돌을 쌓아 만든 노대(弩臺)로서 팔달산 서장대 옆의 서노대와 짹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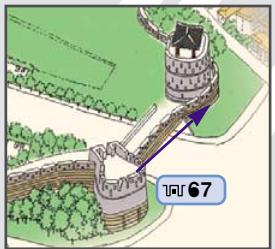
노대는 쇠뇌(활에서 발전된 무기로 활을 활통에 끼우고 활틀 끝에 구멍을 파서 발사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활보다 훨씬 멀리나가고 여러다발을 한꺼번에 연속으로 쏠 수 있는 무기로서 서양의 석궁과 비슷하다.)를 쏠 수 있도록 만든 진지로서 벽돌로 높게 쌓아 근접하는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마주보면 조망선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서 화성총지휘소인 서장대에서의 명령하달을 서노대에서 오방기로 신호하면 그대로 여기에서 접수하던 곳이다. 또한, 이곳 동북노대는 동북공심돈과 창룡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창룡문 일대에 내습하는 적을 대비하여 만든 시설이다.

1796년(정조20) 4월 14일 완성되었으며, 총 3,748냥의 공사비가 들었다.



66 동북노대와 동북공심돈



67 동북노대 < 동북공심돈

동북노대에 오르자마자 왼쪽 첫 번째 타구에서 본 동북공심돈의 모습이다.

타구는 쇠뇌를 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가 벌어져 있고 아래쪽이 좁혀져 있다.

타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쪽의 잔디와 성곽, 동북공심돈 그리고 파란하늘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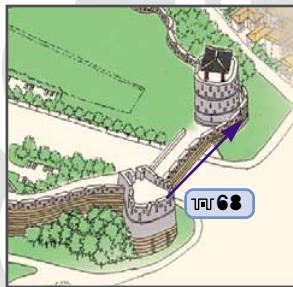
특히 납작한 지붕모습이 공격과 방어, 통제시설로서 안정감을 준다.



66-1 동북노대 타구와 총안



67 동북노대 타구에서 본 동북공심돈(소라각) 전경



동북노대의 첫 번째 타구를 넘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총안을 통하여 본 동북공심돈이다. 위가 개방된 타구에서 본 것과는 달리 총안이 동북공심돈을 둘러싸서 그 안에 넣어진 경관이 또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 성곽구조물로 보여주고 있다.

④ 봉돈(烽墩)코스 : 창룡문과 동남각루 사이를 연결하는 평성(平城)코스



새로이 조성되는 창룡문주차장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방화수류정방향 코스로의 접근도 좋다. 봉돈은 밖에서의 정보를 받고, 보내는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어 화성의 정보를 창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창룡문에서 동남각루까지는 평탄지역의 평성으로서 화성에서 가장 긴 성곽 형태를 만날 수 있으며, 용의 배에서 꼬리부분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봉돈코스는 동남각루까지 약 1,230m이며 대략 50분이 소요된다.



68 동북노대 총안에서 본 동북공심돈(소라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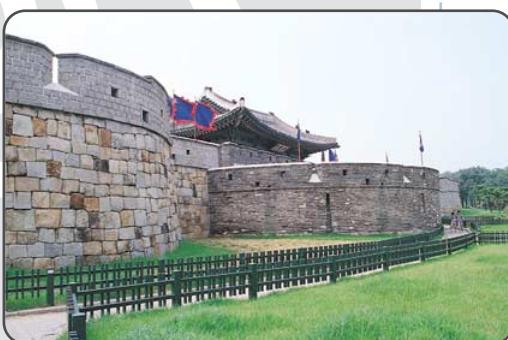
69 창룡문 (蒼龍門)



69 창룡문 현판



69-1 창룡문과 동옹성



69-2 서남쪽에서 본 창룡문(동문)

창룡문은 화성의 동쪽문으로 규모와 특징이 화서문과 거의 같은 건축물이다.

창룡문은 일반적으로 동문(東門)이라고 불리는데, 화성행궁에서 정면으로 난 길을 따라 오교(현재의 매향교)를 건너 용인·광주로 연결되는 화성의 동쪽출입구이다.

이문은 석축으로 된 무지개 문 위에 단층문루가 새겨져 있으며, 사방은 여장으로 둘러졌고, 문의 전면에는 반월형의 옹성을 벽돌로 쌓아 성문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모든 면에서 성의 정문(正門)인 장안문과 팔달문보다 격을 한 단계 낮추고 있으나, 건물이 갖는 건축적인 조형미가 감소되지는 않았다.

창룡문 역시 외성(外城)인 옹성(甕城)을 가지고 있으나, 성의 주 출입구인 장안문과 팔달문과는 달리 성을 쌓는 제도(制度)대로 성문과 나란히 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두었으며, 문(門)도 달지 않았다.

또한 성문의 옹성안쪽 우측에는 축성시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일명 실명판)이 화서문보다 뚜렷하게 남아있다. 문루는 한국전쟁때 파괴되었던 것을 1975년 화성복원공사시에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에 따라 완전히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룡문은 1795년(정조19) 5월 8일 묘시(6시)에 지을 터를 닦아서, 9월 27일에 상량하고, 10월 17에는 문루까지 완성되었다.

당시 창룡문 축조비는 13,335냥이 들었다.

● 창룡문에 쓰인 상량문

안에는 장용위를 설치하고, 밖에는 정리청(整理廳)을 겸하니, 조화를 이룬 원시적인 큰 규모가 아래로는 백성의 힘을 괴롭히지 않고, 위로는 농업에 번거롭게 아니하였으니, 아름답다!

70 창룡문 < 동일포루

창룡문(동문)에서 봉돈방향으로 5번째 타구를 통하여 본 동일포루 전경이다.

지형이 평지인데도 성벽을 구부려 놓아, 각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각도와 성곽구조물의 안정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쌓여진 성벽의 모습은 복원되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성이 들어간 당초의 치밀하게 쌓아올린 것과 대충 쌓아올린 것 같은 그 후의 성곽축조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당시의 시대상을 비추어 볼 수 있다.



71 동일포루 (東一砲樓)

포루는 치성위에 지은 집이다. 포루는 사방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마루 밑으로는 총안과 연결되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공격과 방어기능을 갖추고 있다.

포루(砲樓)와 비슷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나, 형태상 성체에서 툭 튀어나온 부분을 석재로 만든 것이 다르다. 이 동1포루는 창룡문에서 남쪽으로 약 180m에 있으며, 적의 창룡문 방면공격에 대비해서 만들었다.

동일포루는 1796년(정조20) 7월 10일에 준공되었으며, 2,881냥의 공사비가 들었다.



69-3 창룡문 문루밖에 새겨있는
공사 실명판



69-4 창룡문 문루 천장의 청룡

71 동일치에서 본 동일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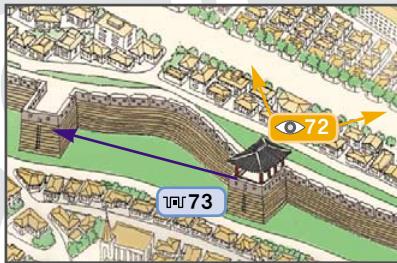
☞ 72 동일포루에서 본 전경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에서 창룡문(동문)까지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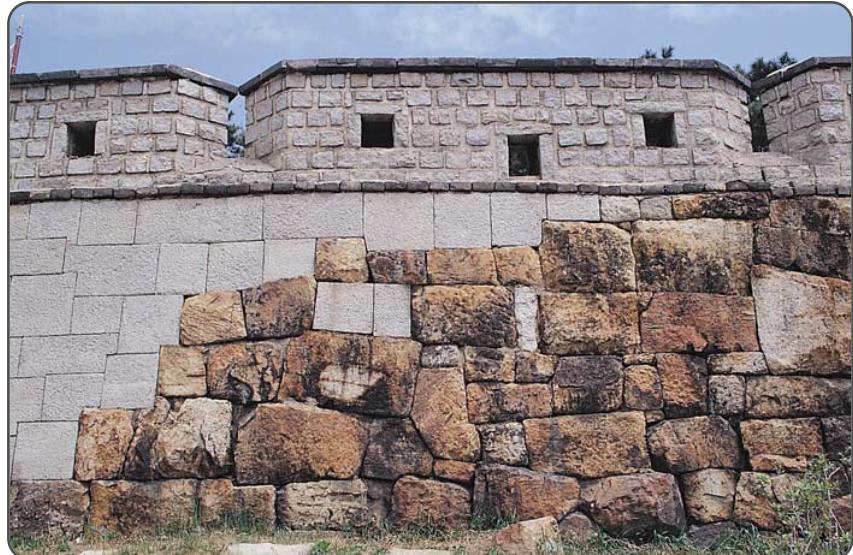
동장대, 동북공심돈(일명 ‘소라각’)도 좋지만, 직선으로 보이는 각진대(동북포루)의 단아한 멋과 기품을 볼 수 있다. 이 동일포루와 동일치 사이에는 동쪽과 남쪽을 가르는 경계석(창룡위중부)이 있어서 동쪽으로는 청색기, 남쪽으로는 붉은기를 꽂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

☞ 73 동일포루 < 동일치

동일포루의 마루아래 서쪽 면 타구에서 동일치 방향으로 본 성곽의 모습이다. 들어설때 머리 부딪치는걸 조심해야 한다. 안으로 깊게 휘어 들어간 성곽의 곡선에서 사선으로 만들어진 각도가 공격방향을 교차시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넓은 잔디공간을 이루고 있다. 역시 당초의 성벽과 복원성곽이 화연하게 구분됨을 볼 수 있다.



☞ 73 동일포루 총안에서 본 동일치와 곡선형 성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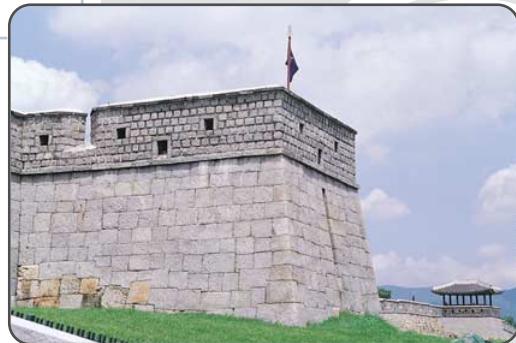
74 동일치 (東一雉)

치는 성곽의 요소요소에 성벽을 돌출시켜서 전방과 좌우방향에서 성벽에 접근하는 적병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화성에는 10개소가 있다.

서애 유성룡(1542-1607)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성곽의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고 그 보완책을 강구하였는데, 그 중에서 치성의 축조와 치성을 응용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의 주장은 화성축성에 반영되어 치성을 곳곳에 설치하게 되었다.

동일치는 동일포루에서 봉돈쪽으로 약 150m(125보)거리에 있다. 동일치는 치의 외곽모서리를 직각으로 하였고, 현안을 한 개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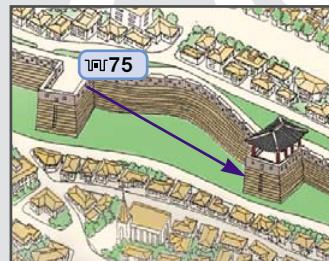
공사비용은 1,728냥이 들었다.



74 동포루에서 본 동일치



75 동일치 동쪽 타구에서 본 동일포루



76 동포루 (東砲樓)



76 동이치에서 본 동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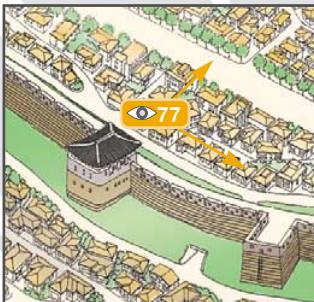
포루는 공심돈과 같이 가운데를 비우고 치성위에 누각을 지어서 화포를 감추어 두고 위아래서 한꺼번에 발사하여 성벽에 접근하는 적에게 피해를 주는 가장 중무장된 시설이다. 성벽의 모양이 경사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경사진 규형(圭形) 성벽이다.

화성에는 화포에 강한 벽돌을 사용하여 모두 5개의 포루를 만들었는데, 서포루만 약간 작고 4개의 포루는 동일한 규격이다.

동포루는 창룡문에서 동남각루 사이를 방어하는 위치에 있다.

1796년(정조20) 7월 16일에 준공되었으며, 3,280냥의 공사비용이 들었다.

77 동포(砲)루에서 본 전경



동장대와 동북공심돈(소라각)도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수원의 진산인 광교산의 부드러운 능선을 발견할 수 있다.

수원 8경의 하나인 광교적설(光敎積雪 : 흰 눈 덮인 광교산의 장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자리가 된다. 안쪽으로 성벽을 따라 난 오솔길과 바깥쪽의 평坦한 지역에 길게 뻗은 성곽의 아름다운 정경을 확인할 수 있다.



76-1 남쪽에서 본 동포루 / 규형(圭形)성벽

78 동이치 (東二雉)

동이치는 동포루(東砲樓)와 봉돈사이의 중간지점으로 동포루에서 110보 거리에 있다. 봉돈과 동포루 사이를 방어구역으로 하고 있다.

완성하는데 든 비용은 1,535냥이 되었다.

79 동이치 < 동포(砲)루

동이치 동쪽 면의 첫 번째 총안에서 동포루를 바라본 전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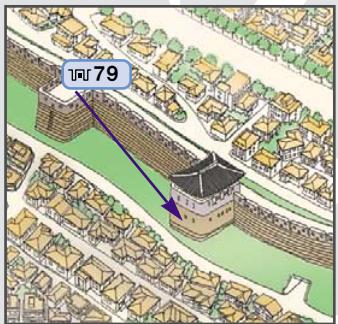
화성에서 화서문에서 장안문, 화홍문에 이르는 구간과 함께, 가장 긴 평지 위에 형성된 성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곽의 실루엣이 아름답다. 성곽 앞으로 조성된 잔디밭 위로 꼬마들과 데이트족들이 만들어놓직한 오솔길이 나있다.



78 봉돈에서 본 동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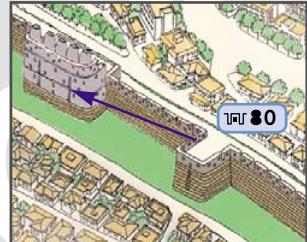


79 동이치 동쪽 총안에서 본 동포루 전경



봉돈코스

▶ 80 동이치 < 봉돈



동이치 서쪽의 첫 번째 총안과 세 번째 총안에서 볼 수 있는 봉돈 주변 정경이다. 봉돈이 단순히 봉화의 기능만이 아니라 치성과 같이 방어나 공격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면 산책길의 곡선이 봉돈과 함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 81 봉돈 (烽墩)



▶ 80 동이치 서쪽 총안에서 본 봉돈



▶ 81 동이포루 앞에서 본 봉돈

봉돈은 봉수대라고도 하며 유사시 봉화불을 올리던 당시의 통신수단이었다.

봉돈은 화성행궁에서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위치로 풍수지리상 안산에 해당되는 자리(일자문성)에 있다하여 안산봉수라고도 한다. 이 봉돈에 파수를 설치해서 화성행궁을 지키고 주변을 정찰하여 불빛과 연기를 신호로 인근에 비상사태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5개의 화두 가운데 평상시에는 남쪽의 첫째 것만을 사용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남쪽의 첫째 화두에서 횃불을 올리면, 동쪽으로 용인 석성산의 육봉(육지의 봉화돈)에서 봉화로 응하고, 서쪽으로는 수원부의 홍천산에 있는 해봉(바다 봉화돈)에서 응하였다. 나머지 4개의 화두는 긴급한 일이 없으면 횃불을 들지 못하게 되어 있다. 봉화는 적이 나타나면 2개, 경계에 접근하면 3개, 경계를 침범하면 4개, 적과 접전시에는 5개의 봉화를 올려 비상사태를 전달하였다. 낮에 연기를 올릴 때에는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곧바르게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리뚱, 말뚱을 말린 것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근대에는 청솔가지, 쑥대 등을 사용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봉수대는 성밖 산봉우리 등에 있으나 화성의 봉돈은 성내에 위치하고 있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봉돈은 흙이나 돌로 쌓아 설치하였는데 비해 화성 봉수대는 벽돌로 쌓아올려 그 규모와 외관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정교하고 장려하게 축조되었다.

1796년(정조20) 6월 17일에 준공되었으며, 봉돈을 완성하는데 5,320냥의 비용이 들었다.

8.2 봉돈에서 본 전경

화성의 중심부인 화성행궁과 총지휘사령부인 서장대와 연결되는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봉돈은 일반적으로 산 정상에 위치하기 마련인데 평지에 위치한 보기드문 경우이다.

그만큼 화성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단서로 볼 수 있다. 기능은 당시의 적정과 위급한 정도를 전달하는 현재의 정보통신센터로 생각할 수 있다.

수원천을 중심으로 동쪽화성을 용(龍)의 형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곳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보내어서, 화성의 정기를 내뿜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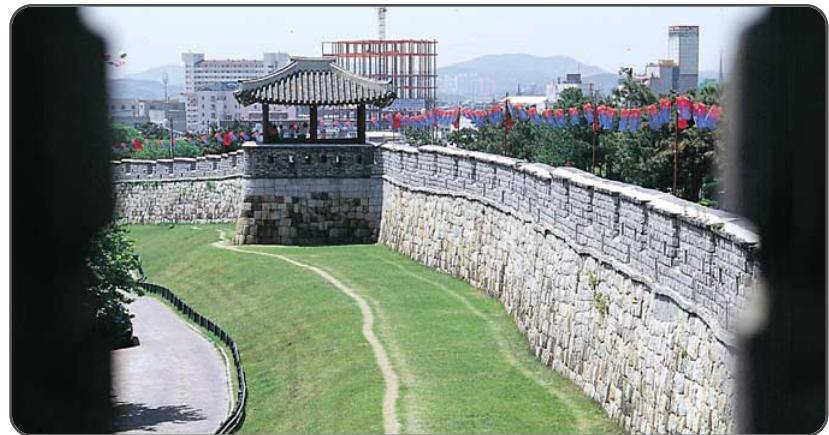


8.1-1 봉수대 거화(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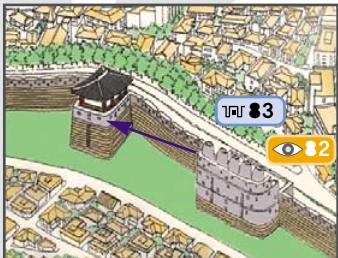
8.3 봉돈 < 동이포루

봉돈 서쪽으로 올라서서 첫 번째 총안이나 세 번째 총안에서 볼 수 있는 동이포루의 모습이다.

기둥만 있는 누각이지만 허틀어짐이 없고, 오히려 빈 공간의 여백과 성곽과 산책길의 은근한 곡선이 투박한 총안 벽돌을 통하여 보여지는 한 폭의 산수화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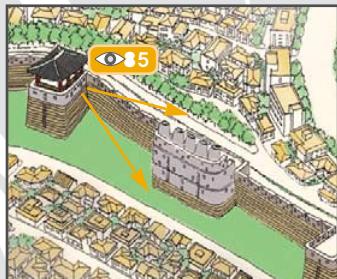
8.3 봉돈서쪽 총안에서 본 동이포루 전경



84 동이포루 (東二樓)



84 동심치에서 본 동이포루와 이어서 봉돈이 보임



동이포루는 봉돈에서 남쪽으로 105보 거리에 있으며, 적의 봉돈방면 공격에 대비하여 만들었다.

만든 모양은 동일포루와 같으나 모서리가 둥근 것이 차이가 있다.

1796년(정조20) 7월 3일에 준공되었으며, 2,721냥의 비용이 사용되었다.

85 동이포루에서 본 봉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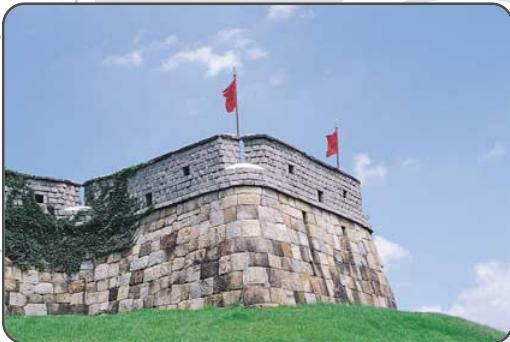
봉돈을 평지에서 가까이 보는 것도 특이하고, 벽돌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형태는 차라리 예술작품에 가깝다. 동이포루 누각아래 총안에서 바라보면 더욱 확연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85 동이포루에서 바라본 봉돈

86 동삼치 (東三雉)

동삼치는 동2포루와 동남각루의 중간지점으로 이 범위를 방어구역으로 하고 있다. 모두 1,727냥의 공사비용이 들었다.



86 동삼치

동남각루는 화성의 동남쪽 모퉁이로 성벽이 격이면서 산세가 수원천을 만나 가파르게 끊어져서 산위로 솟구친 곳을 선정하여 각루를 세웠다. 동남각루는 성안팎으로 시야가 넓은 곳으로서 남수문 방면의 방어를 위하여 남공심돈과 마주보며 군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온돌시설을 갖추고 있다.

1796년(정조20) 7월 25일 건물이 완성되었으며, 공사비용은 성곽시설 중 가장 적은 410냥이 소요되었다.

87 동남각루 (東南角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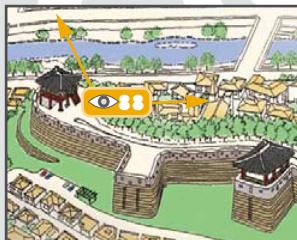


87 동남쪽에서 본 동남각루

동남각루에서부터 팔달문(남문)까지는 미복원부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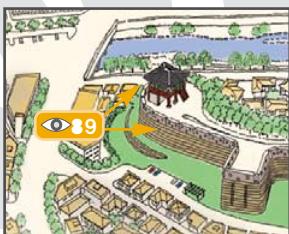
이곳에 있었던 남수문, 남공심돈, 남암문, 남동적대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끊겨있다. 의미상으로 본다면 동북노대와 동북공심돈사이의 끊김은 용의 허리를 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원천 서측의 화성을 거북의 형태로 연상한다면, 거북의 두터운 등껍질을 뚫어 놓은 형국이되는 서장대 관광안내소 앞 주차장부분의 끊김역시 꼭 연결되어 보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87-1 성안쪽에서 본 동남각루



동남각루에서는 수원춘팔경의 유천청연(柳川晴煙) : 맑은 날 물안개 낀 수원천의 풍경과 수원8경에서의 남제장류(南堤長柳 : 남제의 긴 벼드나무숲길)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전시에는 간이지휘소로 평상시에는 편하게 군사들이 쉴 수 있는 유곽으로 만든 지혜가 엿보이는 곳이다.

8.19 동남각루와 남쪽성곽전경

동남각루의 지붕선 및 단청과 남쪽성곽의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이다.



8.9 수원천 방향에서 본 동남각루 전경

화령전은 화성행궁 서북쪽에 위치한 건물로 정조의 뒤를 이어 등극한 순조가 1801년(순조1년)에 정조임금을 추모하기 위하여 화성행궁 옆에 세웠다.

건물구성은 외삼문과 내삼문, 운한각을 일직선으로 배치하고, 운한각 오른쪽에 전사청을 두었으며, 우측담장 밖의 풍화당까지 가 조선후기 건축의 기능적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조임금사당인 이곳에는 역대국왕이 현릉원와 건릉을 다녀갈 때마다 제향을 올렸으며, 탄신일과 납향일 날에도 제사하였다.

정전의 운한각 미관편액은 순조의 친필로 되어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고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편액이 걸려있다.

정조의 어진은 1910년경에 일제의 강압으로 서울로 옮겨 모셨다가 잊어버리고, 1992년에 새로운 영정을 만들어 봉안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이곳에서 화성의 세계유산등록을 고하는 고유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화령전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 11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90 화령전 전경

91 화성행궁 (華城行宮)

임금이 항상 머무르며 국사를 주관하는 본 궁궐을 나와 지방에 머물거나 전란, 휴양, 능원참배 등으로 지방에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 행궁(行宮)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화성행궁은 왕의 원행을 위하여 지어진 조선시대 행궁들 가운데 그 규모나 기능면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행궁이다. 화성행궁은 화산 현릉원 참배 목적 외에 정조임금이 1804년 양위후 장차 화성에 내려와 노후를 보내고자 할 시설이었으므로, 어떤 행궁보다도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며, 팔달산 동쪽 기슭 화성의 중앙부에 자리잡았다.

정전인 봉수당을 중심으로 혜경궁과 정조가 거처할 건물들이 들어서고, 낙남헌 앞마당을 가운데 두고 행사용 건물이 배치되었는가하면, 평상시 화성유수부의 관아로 사용하도록 관청건물을 한군데로 모아두었다. 행궁 밖으로는 강무당행각, 무고행각, 수성고, 이아 등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화성행궁은 화성축조가 완공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576칸 규모의 웅장한 건물이 되었다.

행궁은 평상시에는 지방행정의 관아로 사용하다가 왕의 원행시에는 왕의 거처로 이용되었다.

화성행궁은 1795년(정조19) 윤2월 혜경궁 회갑연의 다양한 공연예술 및 행사(알성도, 봉수당진찬도, 낙남헌방방도, 득중정어사도, 낙남헌양로연도, 신풍루사미도 등 의 그림으로 남겨져있다.)가 치러진 중심무대였으며, 정조와 후대의 국왕들이 능행차 때마다 머물렀던 조선시대 최대의 행궁이었다.

화성행궁은 일제침략기중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괴되어 그 터는 자혜의원, 경찰서, 토목관구, 학교 등이 차례로 들어서 모두 훼손되고 낙남헌만이 신풍초등학교 교정에 남아있었다.

'화성성역 200주년' 을 기념하여 수원시에서 1996년 7월 19일 행궁복원공사에 착수하여 1997년 9월 12일 봉수당의 상량식을 가졌다.

2010년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다.



91 복원된 화성행궁 전경

◆ 어제 / 봉수당에서 진찬할 때 후창한 악장

어머니의 순수한 덕, 두터운 그 은혜, 형용하기 어렵구나!

가만히 도와 주신 크나큰 사랑, 태평을 열어 주셨네. 모든 복 모여서 오기를 넷물처럼 끊임없구나.

많고 많은 자손들, 해마다 경사스런 일 생기네. 북두칠성처럼, 송산처럼 높고 높은 복록 구슬책에 상서 기록하고,
익은 술로 노소 잔치하네. 아! 아름다운 어머니의 덕! 평안히 회갑이 되셨네.

시절은 요순 시대, 물색은 두루 넉넉하구나

새로운 고을에서 이처럼 즐거우니, 기리는 노래 집집마다 더하였네.

만이 되고 억이 되어, 날과 달은 항상 오르소.

◆ 상량문 / 봉수당

너희 모든 노인들 여기 와서 나와 함께 평안을 즐기자꾸나.

◆ 한시 / 을묘 화성진찬하는 날

해마다 오늘같기를 원하노니 장락당 가운데 술은 몇 순배이던가..



〈선유락·봉수당 진찬도〉

● 수원춘팔경

『신풍사주』(新豐社酒 : 신풍루에서 벌어지는 향음주례) :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루(新豐樓) 누각에서 유생들이 향음주례(鄉飲酒禮)를 행하는 광경이다. 향음주례는 온 고을의 유생들이 모여 향약(鄉約)에 따라 예를 실천하는 행사로써 백성의 교화에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다.

정조임금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던 화성부에서 벌어진 향음주례는 매년 봄 매우 성대히 행해져 그 장관이 춘팔경의 하나로 꼽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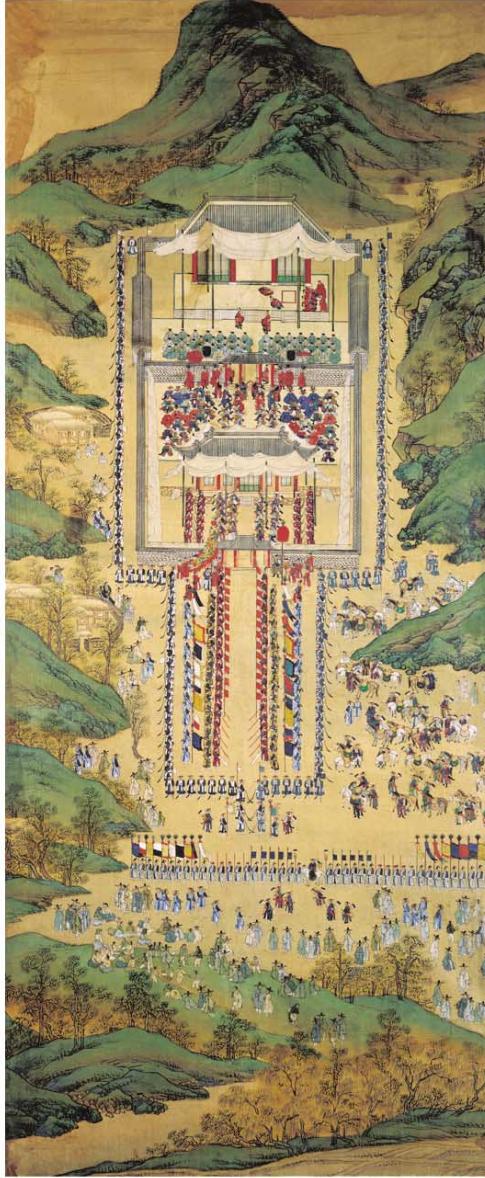
● 수원추팔경

『한정품국』(閑亭品菊) : 화성 행궁 뒤편의 미로한정(未老閒亭)에서 만개한 국화를 품평하는 광경.

미로한정(未老閒亭)은 행궁후원의 서쪽에 만든 정자로 ‘늙어서 한가하게 쉴 정자’ 란 뜻이다.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단풍이 붉게 물든 팔달산과 행궁 건물, 성곽, 서장대를 함께 그려놓아 국화 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경관을 함께 감상했음을 표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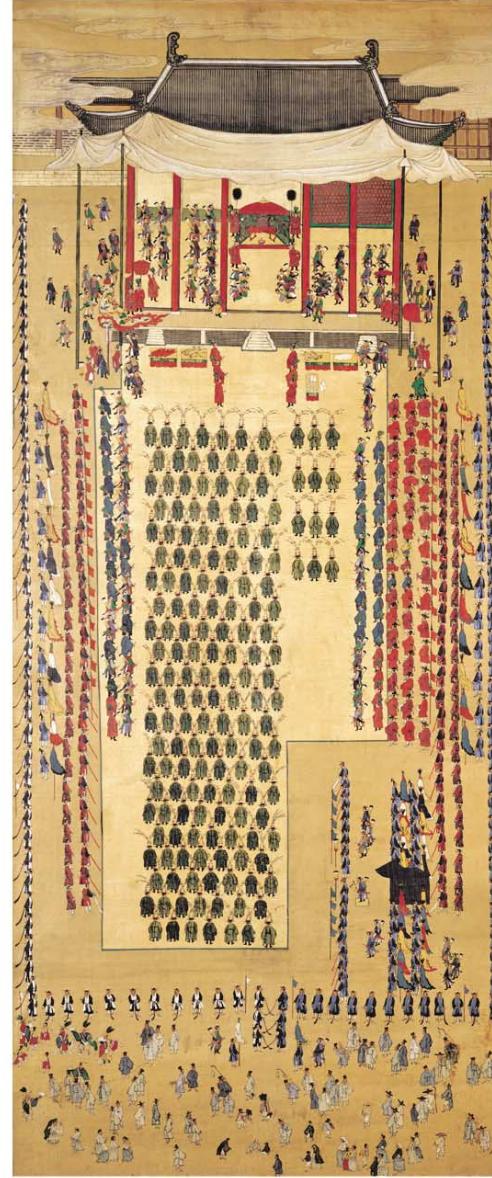
미로한정 건물은 사라졌지만 주춧돌은 남아 있다.

■ 정조 임금님의 화성 등행차도



화성성묘전배도 (華城聖廟展拜圖)

성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 문묘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 문묘가 있었다. 여기 성묘는 수원 지역 향교의 대성전을 화성으로 옮기고 정조가 그곳에 참배하는 모습이다.



낙남헌방방도 (落南軒放榜圖)

낙남헌은 정조가 활을 쏜 득중정(得中亭)을 노래당 뒤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넓게 터를 닦아 지은 행궁 건물이다. 방방(放榜)이란 과거를 보고 그 결과를 방을 불려 발표하는 것이다. 정조가 낙남헌에서 과거를 실시하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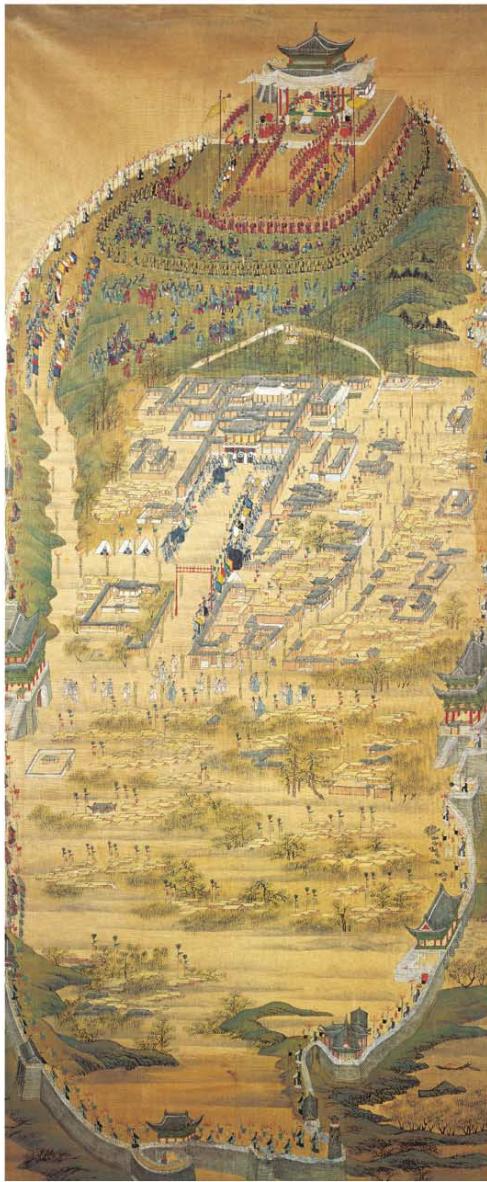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이 건물은 원래 장남현이라고 하였는데 정조가 19년(1795)에 헌릉원에 행차하고 이곳에서 모친인 혜경궁 총씨의 회갑연을 올리면서 봉수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회갑연을 열어 축하드리는 모습이다.



낙남현양로연도 (洛南軒養老宴圖)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풍속을 교화하기 위하여 매년 8월에 양노잔치를 베풀었다. 낙남부 양노잔치에는 수원부 노인들로서 관료는 나이가 70세 이상, 서민은 80세 이상의 노인을 초대하였다.



서장대성조도 (西將臺城操圖)

정조가 화성의 서쪽에 있는 팔달산의 서장대에 올라 성을 수비하고 공격하는 훈련과 야간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그림이다. 정조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화성의 방어체계를 점검하고 군사적인 위세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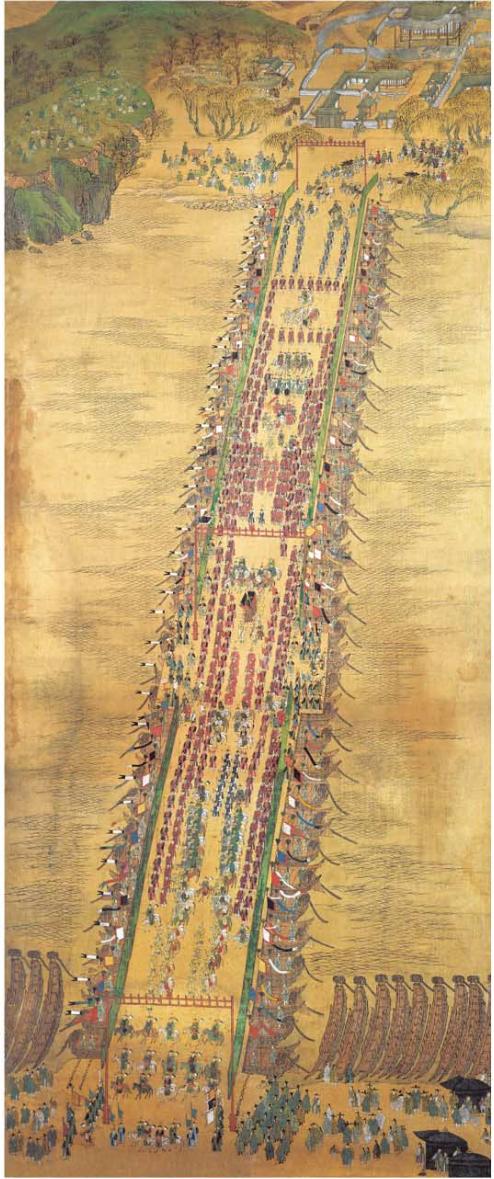
득중정어사도 (得中亭御射圖)

정조가 득중정에서 활쏘기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 정조는 세종과 함께 문무를 경비한 왕으로 활쏘는 솜씨가 뛰어났다. 어사도를 그린 이날도 정조는 첫 번째는 유업전 30발을 쏘아 24발을 맞추었고, 두 번째로 장혁(掌革)에다 3발을 명중시켰고, 세 번째는 유업전 25발을 쏘아 24발을 명중시킨 놀라운 솜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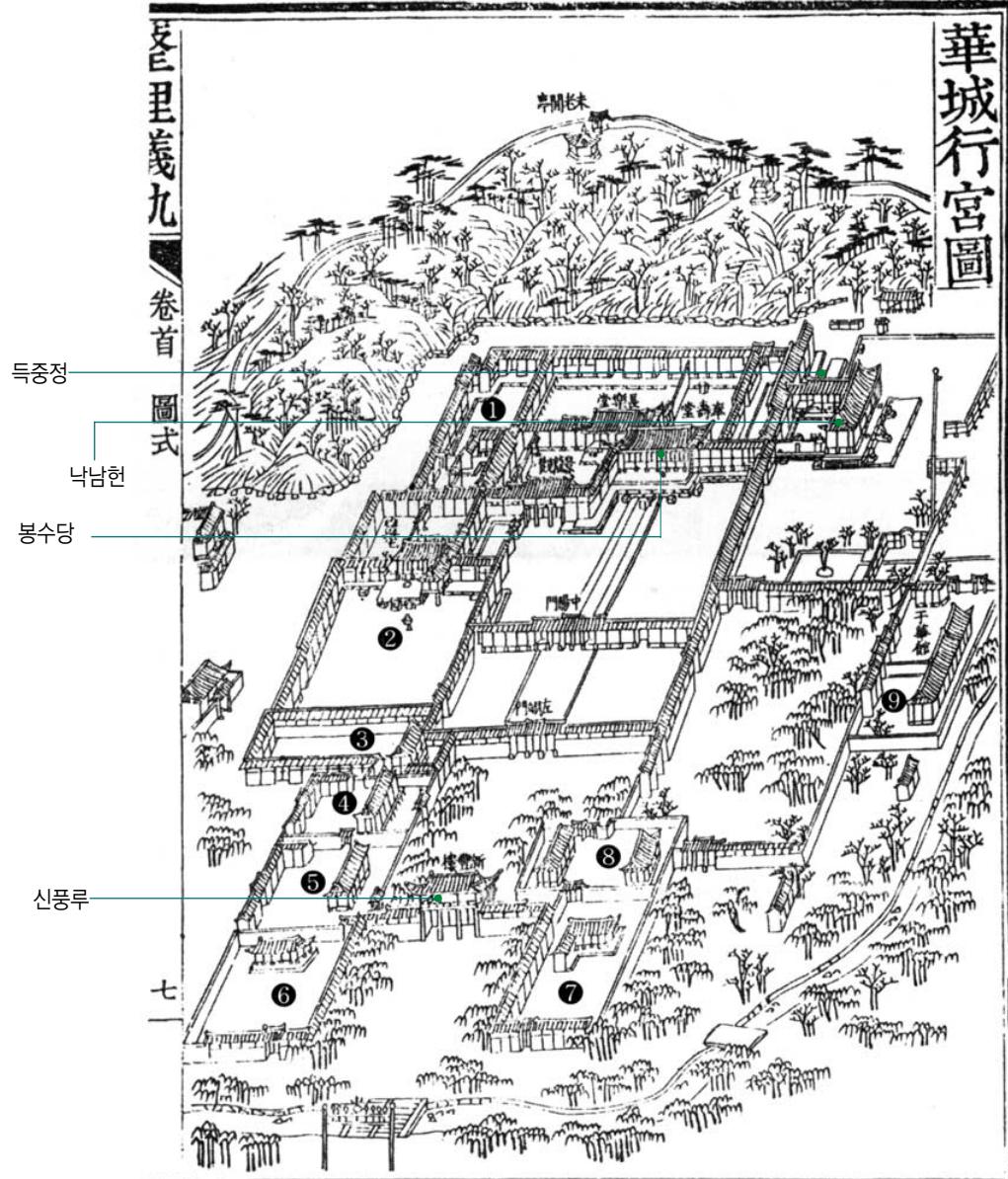
시흥환어행렬도 (始興還御行列圖)

한양에서 수원을 가려면 과천을 거쳐서 가야만했다. 그런데, 과천에는 사도세자를 죽일 때 앞장섰던 김상로의 형 김약로의 무덤이 있다. 정조는 원수의 무덤 옆을 지나갈 수 없다고 과천길을 버리고 시흥을 거쳐 수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현릉원을 참배하고 모친인 혜경궁 홍씨에게 회갑연을 올린 후 시흥행궁에 머물다가 귀경하는 모습이다.



노랑주교도섭도 (露梁舟橋渡涉圖)

정조가 수원의 현릉원을 참배하고 노량진에서 배다리를 이용하여 한강을 건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배다리는 배를 여러 개 엮어 강을 건널 수 있게 설치한 부교 (浮橋)이다. 배다리를 만들 때에는 큰 배는 강의 중앙에, 작은 배는 강의 양가에 놓아서 기운데가 높고 암느냐를 낮도록 하였고, 흥실문을 가운데 한 개, 양끝에 두 개, 모두 3개를 설치하였다.



- ① 내당 ② 여택 ③ 정리소 ④ 장청 ⑤ 리청 ⑥ 군영 ⑦ 군영 ⑧ 사청 ⑨ 화관